

##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식품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 제5절 농림 행정

##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 가.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개요

제1차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04~'09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6천6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45%(유기농 15%, 무농약 30%)인 14만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을 '유기농 원년'으로 대내외에 선포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키로 하였다.

〈표 2-17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연도별	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용 자	자 담
계	1,662,018	573,169 (34.5%)	256,795 (15.4%)	453,281 (27.3%)	99,290 (6.0%)	279,483 (16.8%)
2010	300,434	111,169	46,443	85,537	7,910	49,375
2011	315,608	108,280	50,034	88,237	14,060	54,997
2012	330,761	112,644	51,220	91,040	18,475	57,382
2013	350,119	118,400	54,434	94,221	24,390	58,674
2014	365,096	122,676	54,664	94,246	34,455	59,055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1) 친환경농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제2차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강도 높은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매년 10여만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지정운영 조례에 따라 유기농 5년차 이상 된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여 유기농 확대 및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대도시 소비자, 외국인 등 연간 9천여명(3.4억원)을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2) 저탄소 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을 살리기 위해 필지별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D/B화 해나가고, 토양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력증진을 위해 매년 녹비작물재배 40천ha, 토양개량제 공급 180천톤, 유기질비료 지원 500천톤 이상을 공급한다.

지역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별 자원순환농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3) 표준농법 및 농자재 보급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표준화된 친환경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지도직공무원, 선도농가, 친환경농업도우미, 메신저 등 2,5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 영농을 돕는다.

친환경농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 농자재 개발 및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지역 우수업체에 대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 확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개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50천ha,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2개소, 친환경 뚝방 조성 800개소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인증품목의 다양화 및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5,000ha를 지원하는 등 과수, 채소, 특작 등 각 분야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 실천은 물론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생태 체험, 친환경식당 운영 등을 포괄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50개소를 중점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 (5) 가공유통수출역량 강화

친환경농산물 가공을 통해 수급안정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200개소, 가공시설 설치 100개소, 마을단위반찬산업 육성 65개소 등을 지원해 상품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시군유통회사 설립 6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50개소, 저온저장시설 1,600개소, GAP위생시설보완사업 25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외 유기농 규격인증 지원 70개소, 농산물수출 물류비 150억원, 그리고 수출상담회와 무역교류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6)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5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2~3개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인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 주력인증기관 협약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23개소) 설치·운영,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지원' 23천 건, '유기농종합보험' 3천 건, '생산이력추적제' 시행, 명예감시원·메신저·친환경농업도우미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친환경정책담당 이춘봉, 담당자 이정희

## 다. 2012년 분야별 추진실적

### (1)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유기농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읍면별 10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기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기농 명인' 17명을 선정하고 도 친환경농업교육관(3개소)에서 유기농 명인 교육과정을 통해 340명의 유기농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저탄소 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을 살리기 위해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D/B화 해나가는 한편, 화학비료 대신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재배 41천ha, 토양개량제공급 149천톤, 유기질비료 533천톤을 공급하였다. 지역 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순환농업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축자원화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3) 표준농법 및 농자재 보급

저비용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새끼우렁이농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새끼우렁이는 일반 제초제보다 투입비용이 1/2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방지 등 자연환경을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생산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축산분야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 (4) 친환경농업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 확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개소, 지구조성 8개소(총 85개소), 친환경농업단지 40천ha,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151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인증품목의 다양화 및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신선과채류 천적해충방제사업 267ha를 지원하였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검사지원사업 1,096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기농종합보험’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23개소)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설치·운영 및 명예감시원 140명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순환농업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축자원화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3) 표준농법 및 농자재 보급

저비용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새끼우렁이농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새끼우렁이는 일반 제초제보다 투입비용이 1/2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방지 등 자연환경을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생산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축산분야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 (4) 친환경농업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 확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개소, 지구조성 8개소(총 85개소), 친환경농업단지 40천ha,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151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인증품목의 다양화 및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신선과채류 천적해충방제사업 267ha를 지원하였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검사지원사업 1,096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기농종합보험'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23개소)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설치·운영 및 명예감시원 140명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 라. 2012년(3차년도)주요성과

### (1) 제2차 5개년계획(3차년도) 추진 성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2012년말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은 우리 도가 75,948ha로 경지면적 304천ha의 25%,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증면적에서도 82,309ha로 경지면적의 27%,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7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단위 : ha, 호)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4,057	13,772	29,341	65,619	101,256	104,682	98,112	87,817	82,309
유기농	416	697	1,380	1,476	2,410	2,745	3,323	5,983	9,134
무농약	991	2,210	4,180	10,591	23,725	40,015	59,731	63,283	66,814
저농약	2,650	10,865	23,871	53,552	75,121	61,922	35,058	18,551	6,36
농가수	4,060	15,752	31,544	70,929	104,407	110,385	97,460	80,101	65,891
경지면적 대비	1.3%	4.4%	9.1%	20.8%	32.5%	33.8%	31.9%	28.8%	27%
전국 대비	14%	28%	39%	53%	58.2%	51.9%	50.6%	50.9%	50%

\* 2004년 대비 : 인증면적 20배, 유기농 22배, 무농약 67배, 농가수 16배 증가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친환경육성담당 위삼섭, 담당자 임경옥, 성진섭

## 1-2. 농업전문인력 육성

### 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 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21C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영

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81년~'12년까지 육성인원은 21,253명(남 18,975, 여 2,278)이며, 지원자금은 4,981억원으로 '03년 이후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72〉 창업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선정인원	성 별		분야별 인원		분야별 예산		
		남	여	경종분야	축산분야	계	경종분야	축산분야
2003	327	275	52	221	106	16,440	10,615	5,825
2004	234	201	33	133	101	14,590	7,738	6,852
2005	202	155	47	115	87	16,800	8,562	8,238
2006	227	176	51	165	62	15,890	12,020	3,870
2007	299	217	82	197	102	16,420	10,835	5,585
2008	216	163	53	135	81	11,534	8,266	3,268
2009	240	190	50	181	59	14,480	10,780	3,700
2010	230	191	39	174	56	13,429	9,932	3,497
2011	221	178	43	144	77	28,764	18,149	10,615
2012	217	175	42	158	59	31,850	23,353	8,49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문연안

## 나.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정착의욕이 강한 젊은 인력을 발굴하여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영농설계에 따라 2억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05~'12년까지 육성인원은 353명이며, 지원자금은 334억원으로 연도별 지원 실적과 영농 정착률은 다음과 같다.

〈표 2-173〉 신지식학사농업인육성 및 영농정착률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육성인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육성인원	353	15	12	41	48	69	79	50	39
영농정착	349	12	12	40	48	69	79	50	39
영농미종사자	4	3	-	1	-	-	-	-	-
정착율(%)	98.7	80	100	97.6	100	100	100	100	100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방종진

## 다. 전남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업교육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시설 등을 통합·활용하여 교육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06년에 5개 기관(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농업기술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이 참여한 전남지역특성화사

업단을 결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07년에는 이를 사단법인화 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실시 하였다. 또한 '93년부터 실시해 오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06년부터 '08년까지 지역농업특성화교육에 흡수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교육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으로 총 34개 과정을 개설 품목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1,744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325명이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09년부터는 이론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습형 현장중심의 기술·경영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전남미래농업대학을 개설하여 2년 4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실현을 위하여 신 성장 핵심품목 위주로 학과를 개설하여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까지 한우, 양돈, 배 등 13개 학과를 운영하여 3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조경수, 참다래 등 15개 학과의 제3기 교육생 330명을 모집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75〉 교육인원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운영		예산지원내역				해 외 연 수
	과정수	교육생	계	국 비	도 비	자 담	
2008	34개 과정	748	1,046	480	480	86	172
2009	12개 학과	360	1,337	802	535	-	-
2010	12개 학과	356	1,256	734	522	192	80
2011	12개 학과	243	1,093	551	306	236	-
2012	12개 학과	217	1,438	678	302	458	144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강하춘

## 라.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농업인 교육체제 개편으로 2009년부터 전남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도의 일부 특화품목이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교육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년 과정의 도 자체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과정 운영은 순천·전남·목포대학교에 위탁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실현을 위한 실습형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지난 '93년 개설하여 추진하다가 '06~'08년도까지 지역농업특성화교육으로 추진되었고 '09년부터 재개설 운영하여 '12년까지 3,27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09년도에는 농식품경영체 전문가 양성 등 4개반을 운영하였고, '10년에는 농산식품가공 1개반을 추가 신설하여 5개반에 155명을 교육하였으며, '11년부터는 첨단농업 기술과 혁신 농장 경영기법 등 전문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촌개발리더반 등 4개반에 119명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12년에는 목포대(1개반)에서 교육운영을 포기하여 교육일정상 부득이 전남대에 6개월 과정 2개반(양봉, 오리사육)을 개설하여 총 6개반으로 174명을 교육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표 2-176〉 교육인원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운영		예산지원내역				비고
	반 수	교육생	계	국 비	도 비	자 담	
'93~'06	25	2,725	4,451	584	2,927	940	
2009	4	90	147		120	27	
2010	5	155	205		160	45	
2011	4	119	160		112	48	
2012	6	174	199		140	59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강하춘

## 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그동안 농업구조개선 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이 떨어져 부실 경영체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12년도에는 총 124개소(개인 75, 법인 및 조직경영체 49), 1,050백만원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은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단체 등은 24백만원 이내로서 컨설팅 비용 중 50%를 보조지원 하였다. 지금까지 지원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은 총 1,922개소에 16,282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표 2-17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축산	원예	가공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99~'07	1,030	603	286	71	70	8,412	3,407	752	864	3,389
2008	179	55	85	27	12	1,588	777	152	151	508
2009	209	45	96	28	40	1,742	852	170	170	550
2010	171	44	58	22	47	1,440	720	144	144	432
2011	209	30	82	30	67	2,050	603	240	201	1,006
2012	124	24	54	17	29	1,050	315	105	105	525
계	1,922	801	661	195	265	16,282	6,674	1,563	1,635	6,410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문연안

## 바. 귀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을 원하는 귀농인에게 각종 정착관련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였다.

지원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07년 1월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남지역에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귀농 희망자에게 상담 단계부터 영농 정착시까지 비즈니스 차원의 one stop service 지원시스템을 구축, 상담전용 전화(전국대표 1577-1425)를 설치 운영하고, 귀농귀촌 안내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에서 주택·농지·축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귀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도 귀농가구('90~11)는 9,973가구이며, '07년 257가구, '08년 289가구, '09년 549가구, '10년 768가구, '11년 1,521가구, '12년 2,49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158가구 8,67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빈집수리 66가구 330백만원, 귀농모임체지원 60백만원, 수도권 교육생 현장교육지원 4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수도권 지하철역 귀농 홍보간판 설치, 귀농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 도시민 대상 귀농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2-178〉 귀농정착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지 원 사 업 비				
		계	정 착 지원금(응자)	빈 집 수리비	귀농모임체 지원	수도권교육생 현장실습지원
'05~'06	54가구	847	800	47	-	-
2007	35가구	87	-	87	-	--
2008	41가구	55	-	55	-	-
2009	270가구	1,025	-	1,025	-	-
2010	243가구	1,248	-	1,248	-	-
2011	272가구	6,430	5,680	750	-	-
2012	224가구	9,115	8,677	330	60	48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방종진

### 1-3. 농촌 보육여건 개선

#### 가.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원칙이다.

‘12년에는 도서지역 2곳(진도, 신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경로당 등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한옥형 복합 보육시설로 시설당 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현황

연 도	지원현황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2	2개소	480	182	149	149

##### (2) 이동식 놀이차량 운영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육수요가 존재하나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유아에게 놀이도구를 빌려주거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 놀이차량 운영은 공적이고 보육전문 경험이 있는 전라남도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제외지역 영유아 477명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난감, 도서 대여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취약아동 계층(장애아·조손·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표〉 이동식 놀이차량 운영 현황

연 도	서비스 지역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2012	8개군 25개면	130	91	39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경영

#### 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합동)의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이며,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현황

연 도	지원현황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2	3,164명	4,163	1,965	999	1,199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경영

## 사.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출산 농가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이용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생산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00년도부터 출산농가에 일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신 4개월 이후(85일)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서 여성농업인이 경작 또는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등에 한하여 지원된다.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되며, 농가도우미 이용료는 1인/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조 32,000원, 자담 8,000원으로 농가와 도우미간의 합의하에 지원금이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도우미 사업 현황은 '12년까지 6,781명에 6,266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표 2-179〉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00~2010	5,751	4,979	776	479	2,688	1,036
2011	630	567	-	57	397	113
2012	400	720	-	72	504	144
계	6,781	6,266	776	608	3,589	1,293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양효

## 아.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1988년 11월 3일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인 강진과 학생명고등학교 학생에게 1식당 2,150원 수준에서 지원된다.

지금까지 자영농과생 지원현황은 '12까지 6,113명에 3,891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표 2-18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교육청비	자 담
1988~2010	5,242	3,157	306	1,279	821	751
2011	424	348		174	104	70
2012	447	386		193	116	77
계	6,113	3,891	306	1,646	1,041	898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양호

## 1-4.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활력 증진

### 가. 도농교류 활성화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운영매니저) 채용 지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순천향매실마을, 영암왕인촌마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마을사무장 36명(19개시군, 502백만원)과 운영매니저 17명(13개시군, 23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지원하였다.

사무장(운영매니저)은 체험, 홍보, 마케팅, 마을 운영 등의 능력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마을 위원장과 함께 마을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무장(운영매니저)의 고용여건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과 더불어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8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지 원 개소수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06~2009	107개소	1211	606	145	339	121
2010	35개소	504	252	61	141	50
2011	50개소	703	265	116	252	70
2012	53개소	737	251	140	269	77

## (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어업자원을 발굴하여 FAO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농업유산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완도구들장논, 보성 계단식차밭, 담양 대나

무쉼, 신안 갯벌, 장흥 개매기어장 등 11개소를 발굴하였고, 이중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3년간 매년 5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 2-186〉 도내 농어업유산 발굴현황

시군	유산자원명	특 징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 청산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농업구조물 ○ 농업토목 및 농업용수 관리의 기술적 보존가치 ○ 온돌문화와 농업토목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농업구조물
보성군	계단식 차밭	○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여 문화적 경관가치 우수 ○ 굽을 이루어 차밭 형성, 굽과 굽사이에 길 조성
	자연농법	○ 생명역동농법, 왕겨, 우렁이 농법 등 자연농법 사용
담양군	대나무숲	○ 경관이 수려하고 미개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큼
신안군	갯 벌	○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생태 유지
화순군	달구리마을 (붓도랑과 다랭이논)	○ 마을전체 경관 수려, 보전가치가 많은 농업자원과 자연자원 보유
구례군	산수유 시목지	○ 산수유꽃 군락지와 낮은 돌담 등 경관 우수
무안군	회산백련지	○ 동양최대의 백련 서식지, 농작물의 젓줄 역할
영광군	염 전	○ 대규모 집단 생산기반 구축
장흥군	개매기어장	○ 전국최대 규모를 자랑, 전통 고기잡이 방법 유지
고흥군	거금도 김양식장	○ 우리나라 최초로 김(해태) 생산, 일제시대에 설립된 해태조합 건물 보유

앞으로도 도에서는 시군 대표 농어업유산 1개소씩을 발굴하여 시군 별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3)농어촌축제 지원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해 축제효과가 높은 마을단위 축제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축제란 농어촌의 사회·문화·자연자원 등을 소재로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단위 축제를 말하고 지원내용은 축제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비용 등에 지원된다.

2012년도에는 고흥 월정갯벌체험축제, 강진 달마지한마음축제, 해남 해남김장나눔축제, 진도 인지리민속문화체험축제 총 4개소에 116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소외된 체험·경관 등을 소재로 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축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2-187〉 농어촌축제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시군별	축제명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08	3개 시군	3개 축제	1,065	530		530	5
2009	2개 시군	2개 축제	100	40		40	20
2010	3개 시군	3개 축제	139	65		65	9
2011	3개 시군	3개 축제	126	50		50	26
2012	고흥군	월정갯벌체험축제	31	14		14	3
	강진군	달마지마을축제	25	10		10	5
	해남군	해남김장나눔축제	31	14		14	3
	진도군	인지리민속문화체험축제	29	12		12	5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담당자 최종천, 김민준

## 나. 농촌 활력 증진

### (1)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2012년부터 농가소득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장리 저리(연리 1%, 10년상환)로 융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처음 시작했음에도 농가들의 관심이 커 200여명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조물 확인 등 현지조사, 발전사업 허가 등을 거쳐 최종 34농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양광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월 평균 60만원 정도의 소득발생이 예상되어 농가소득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에서는 2013년에는 기존의 농업관련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 대지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대상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홍보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요건은 읍면지역 및 준농촌지역으로 경관 형성을 위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이상(준경관작물 10ha)인 지역이며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에 효과가 우수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급단가는 준경관작물은 100만원/ha, 경관작물은 170만원/ha이다.

우리 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126ha 8,797백만원 지원하였으며, '10년 8,201ha, '11년 6,660ha의 면적에 유채, 자운영, 메밀을 경관작물로 식재·조성하였으며, '12년에는 6,328ha를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표 2-188〉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	시군	면적(ha)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5~2009	20개 시군	11,126	8,797	6,158	880	1,759
2010	20개 시군	8,201	10,358	7,251	1,036	2,071
2011	20개 시군	6,660	9,172	6,420	917	1,835
2012	20개 시군	6,328	4,580	3,206	458	916

(3)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어가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제품개발, 마케팅, 홍보비용에 지원하고 지원금액으로는 1개 공동체회사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1년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순천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 보성배영농조합법인,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등 13개소에 지원하여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활용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표 2-189〉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년도	시군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1	13개 시군	13개소	650	325	49	114	162
2012	13개 시군	13개소	650	325	49	114	162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담당자 최종천, 김민준



#### 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은, 생산 농업인의 출자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전문CEO 영입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 농산물을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에서는 '05년 보성 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 등 시범 지원부터 '11년 신규로 선정된 유자식품까지 11개 사업단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시범사업('05~'09) : 3개소/ 보성 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순천, 고흥, 강진, 해남)
- 본 사업('08~'11) : 5개소/ 곡성 멜론, 구례 산수유, 영암 무화과, 무안 고구마, 신안 시금치
- 광역사업('09~'11) : 2개소/ 전남딸기(담양, 장성), 녹색한우(목포, 나주 등 10개시군)
- 지역전략식품사업('11~'13) : 1개소/ 유자식품(고흥, 완도, 진도)

'12년도 도내 11개 사업단 운영실태 보면 농식품 매출액이 1,375억원, 고용인원은 838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사 업 단	매출액(억원)	고용인원(명)	사 업 단	매출액(억원)	고용인원(명)
함평 과학농업	66	66	무안 고구마	63	25
보성 녹차	580	598	신안 시금치	180	11
전남 친환경쌀	8	4	전남 딸기	27	16
곡성 멜론	37	24	녹색한우	344	23
구례 산수유	4	23	유자식품	0.4	4
영암 무화과	55	44			

또한, 7개 사업단에서 호주, 일본, 대만 등 11개국에 96만 달러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였다.

사 업 단	수출품목	수출액(천 \$)	주요 수출국
함평 과학농업	버섯, 복분자와인	98	호주, 일본
보성 녹차	녹차, 음료	15	인도네시아, 미국, 파라과이, 오스트리아
곡성 멜론	멜론, 가공품	450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구례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330	일본
무안 고구마	고 구 마	33	독일, 홍콩
전남딸기	딸 기	6	일본, 대만
유자식품	유자차, 음료	25.5	대만

'14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매실(광양구례), 울금(진도·완도)이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마성간

## 1-5.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 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농어촌진흥기금은 '14년까지 2,000억원을 목표로 국비, 도, 시군 출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해 '90년부터 매년 도비 5~51억원, 시군비 5~35억원 규모로 출연해 오고 있다. 또한 '10년의 경우는 국고 30억원을 차입하여 기금에 편성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 '90년부터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기금조성계획을 변경 및 확대 증액하였으며 '12년 말까지 1,511억원을 조성하였다.

## 나.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농어업인에게 용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부터 '11년까지 3,518억원을 용자 지원하였다.

'12년도 용자사업비는 510억원 규모이며, 대출은 이율은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로 인하(12년부터)하였으며,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등이다. 용자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농어민 단체나 신지식 학사 농업인은 2억원, 가공 등 유통사업은 10억원이며, '13년에는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축사, 창고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에너지농장사업을 진흥기금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담당자 김재천

## 1-6. FTA 농림축산분야 대책 추진

### 가. 도 자체 대책 추진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산분야의 경우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 확대 등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10~'14)」을 추진하고, 축산분야의 경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가축운동장 확보,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11~'15)」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FTA대응대책 T/F팀을 총 6개팀

(총괄, 친환경 및 식량작물, 원예특작, 유통, 축산, 임산)을 확대 운영(88명)중이며, 수출유망품목 및 영향품목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나. 정부정책과제 건의 및 반영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농촌정주 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59개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상향조정(85% → 90%), 농업재해보험 지원확대,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준 현실화 등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도 적극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하여 농수산물목은 최대한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중이며, FTA 수혜분야의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근거인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담당자 김재천

## 1-7.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 가. 농업기계화 현황

우리 농업에서 농업기계는 단순히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저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

하고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03년부터 실시하였다.

## 나. 농기계 임대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임대유형 및 농업기계 선정, 적정 임대료의 산정 등을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고령농업인 등이며,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발작물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04년부터 해남군을 시작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9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시군별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4	해남군	1	250	75	75	100
2005	순천시	1	250	125	50	75
	장흥군	1	250	125	50	75
	강진군	1	250	125	50	75
2006	나주시	1	300	150	45	105
	담양군	1	300	150	45	105
2007	무안군	1	500	250	75	175
	진도군	1	500	250	75	175
	신안군	1	500	250	75	175
2008	여수시	1	800	400	120	280
	순천시	1	800	400	120	280
	광양시	1	800	400	120	280
	곡성군	1	800	400	120	280
	보성군	1	800	400	120	280
	영암군	1	800	400	120	280

년도	시군별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9	나주시	1	800	400	120	280
	구례군	1	1,000	500	150	350
	화순군	1	1,000	500	150	350
	장성군	1	1,000	500	150	350
2010	나주시	1	600	300	90	210
	곡성군	1	600	300	90	210
	고흥군	1	1,200	600	180	420
	장흥군	1	1,000	500	150	350
	해남군	1	1,000	500	150	350
	영암군	1	400	200	60	140
	영광군	1	1,200	600	180	420
	신안군	1	1,000	500	150	350
2011	나주시	1	1,000	500	150	350
	담양군	1	1,000	500	150	350
	보성군	1	1,000	500	150	350
	함평군	1	1,000	500	150	350
2012	나주시	1	1,000	500	150	350
	광양시	1	1,000	500	150	350
	고흥군	1	1,000	500	150	350
	신안군	1	1,000	500	150	350
계		31동	27,930	13,300	4,110	10,520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항철, 담당자 김명식

## 1-8. 농지관리

###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도입하였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을 기지화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였다.

'92. 12. 24 농업진흥지역을 최초 지정·고시하였으며, '93. 12. 24 당초 지정된 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고시하였다. 당초 지정시 1/25,000 지형도에 작성·고시된 도면을 필지가 표시된 1/5,000 지번도에 이기하고 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00. 12. 14에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다.

〈표 2-186〉 2012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비농지
농업진흥지역	227,532	147,535	21,833	328	33,987	23,849
진 흥 구 역	196,852	138,227	14,626	217	24,161	19,621
보 호 구 역	30,680	9,308	7,207	111	9,826	4,228

전년에 비해 농업진흥지역이 5,352ha 증가, 이는 작년에 해남 영산강 간척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 증가되었으며, 해남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농지소득 감소로 농지

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어 시·군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농공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진흥(보호)지역 해제로 농업진흥지역이 감소되었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강하춘, 이승남

### 나. 농지전용 협의(허가) 현황

2012년 한 해 동안 도 및 시군에서 협의 처리한 농지전용 협의(허가)면적은 총 1,017ha(4,560건)였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철도·공항 587ha(498건), 산업(농공)단지 및 기타시설이 52ha(604건)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주거시설 129ha(1,782건), 농수산물가공시설 24ha(76건), 농어업용시설 77ha(486건), 공장시설 22ha(58건), 기타시설 등이 126ha(1,056건) 등이다. 읍면동 신고사항으로는 농업인주택시설 16ha(318건), 농어업용시설 19ha(189건), 농수산물유통 및 기타시설 등 9ha(90건)로 전용 협의 되었다.

이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촌투자유치 등으로 농어촌의 실질적 소득향상으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 농지관리제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7〉 2011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상황

(단위 : 건, ha)

구 분			건수	계	답	전
합 계			4,560	1,017	655	362
허가 협의	공공부문	도로, 철도 항만 및 기타시설	498	587	447	140
	민간부문	주거, 농업용 및 기타시설	3,463	383	192	191
신 고 전 용		농어업용 및 기타시설	599	47	16	31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강하춘, 이승남



### 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기초자료로 하여 불법 관행 임대·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을 조사하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554명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표 2-188〉 2011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천㎡)

조사대상		계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인원	109,907	2,554	1,432	36	14	1,024	48
면적	258,860	5,090	3,484	90	16	1,443	5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담당자 강하춘

## 1-9. 항구적 농업용수 개발

### 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이상 지역에 농촌 용수확보 공급을 목적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3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13,750억원을 투입 96지구 21,789ha를 개발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토록 추진 중

이다. 2012년까지 9,567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표 2-189〉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억원)
	지구수	면 적(ha)	
계	65	17,733	9,567
2011까지	58	15,114	9,351
2012	7	2,619	216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김재곤

#### 나. 지표수 보강개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기존 수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혜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기존 수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혜면적에 용수가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원공을 확장·보강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90년부터 2015년 완공목표로 총 827지구에 4,6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영농도모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 231지구 2,798억원을 투자하여 17,637ha의 담면적이 수리안전화되어 가뭄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90〉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실적

연 차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억원)
	준공 지구수	면 적(ha)	
계	231	17,637	2,575
2011까지	202	14,220	2,575
2012	29	3,417	223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안정욱

#### 다.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물이 설치된 후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공 용·배수로를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 '92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 586지구에 14,78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435지구를 개보수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사전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표 2-19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지 구 수)	사 업 비 (억원)
계	435	9,634
2011까지	396	9,121
2012	39	513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송광민

#### 라. 저수지 준설

저수지 축조 후 유역에서 물과 함께 유입된 퇴적토사로 인하여 줄어든 저수량을 회복하고 수질 오염원인 저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깨끗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가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54개소에 1,555억원을 투자하여 39,223천 m<sup>3</sup>을 준설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2,747개소에 1,474억원을 투자하여 37,959천 m<sup>3</sup>의 토사를 준설하여 저수지 기능회복 뿐만 아니라 부족한 농업용수를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92〉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m<sup>3</sup>, 백만원)

연도별	계			한국농촌공사			시 군		
	개 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 소	사업량	사업비
계	2,747	37,959	147,366	859	24,784	88,342	1,888	13,175	59,024
2011까지	2,747	37,959	147,366	859	24,784	88,342	1,888	13,175	59,024
2012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손영호,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임한구

### 마.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33지구에 2,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03년까지는 국고 50%, 지방교부금 50%이고, 2004년부터는 국비 80%, 시군비 20%이며, 2012년까지 1,146지구에 대하여 암반관정, 급수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 주민 보건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축산용수, 농수산물 세척용수, 시설채소 재배, 가뭄시 전·답 작물에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93〉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량 (지구수)	사업비 (억원)
계	1,146	1,938
2011까지	1,112	1,861
2012	34	7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안정욱

## 바. 농업용저수지 득높임사업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득을 높여 갈수기에 맑은 물을 영산강에 추가 공급하여 영산강의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09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 20지구에 6,706억원(국비 100%)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2년까지 20지구를 착공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를 도모하였다.

〈표 2-194〉 농업용저수지 득높임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지 구 수)	사 업 비 (억 원)
계	20	2,939
2011까지	20(계속사업)	2,484
2012	20(계속사업)	455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김재곤

## 1-10. 기계화 영농 추진

### 가. 경지정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의 규격화·집단화, 용·배수로 신설, 농로개설을 내용으로 '65~2016까지 211,845ha 38,7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180,913ha에 24,80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 일반경지 정리율은 153,559ha 89.6%로 전국 평균 90.2%에 육박하며, 대구·경북 경지정리 정리율은 27,354ha 67.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쌀 산업의 여건변화와 경지의 규모화·집단화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의 사유로 경지정리사업비가 축소되어 2004년 가을착수부터 중단되었다

〈표 2-195〉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ha)			사 업 비 (억원)
	계	일 반	대 구 획	
계	180,913	153,559	27,354	24,801
2011까지	180,082	153,559	26,523	24,551
2012	831	-	831	25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임한구

### 나. 밭 기반정비

'95년부터 시작된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37,797ha에 1조 596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수개발, 경작로 확장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말까지 밭기반 정비율은 52.5%로 5,293억원을 투자하여 19,842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303억원을 투자하여 17,955ha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96〉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억원)
계	19,842	5,006
2011까지	18,839	5,006
2012	1003	28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손영호,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임한구

####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5년부터 시작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농로 7,421km에 7,724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경작지와 유통시설 간 연결농로 확·포장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 4,571억원을 투자하여 4,635km를 완료 62.5%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3,153원을 투자하여 2,786km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9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km)	사업비(억원)
계	4,635	4,571
2011까지	4,472	4,381
2012	163	19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안정욱

### 1-11. 안전영농기반 구축

#### 가. 배수개선

'75년부터 시작한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 침수지역 180지구 49,912ha에 대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 대상 180지구 49,912ha중 2012년까지 124지구 28,373ha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1,223억원을 투자하여 56지구 21,539ha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98〉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지 구 수	면 적(ha)	
계	120	28,373	7,790
2011까지	120	27,787	7,290
2012	4	586	50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손영호,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조준호

### 나. 방조제 개보수

시설이 노후 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부터 2015년까지 981지구에 12,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651지구에 8,794억원을 투자 노후방조제, 배수갑문 등을 개보수 완료하여 시설물의 붕괴,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영농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99〉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별	계		국 가 관 리		지 방 관 리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651	8,794	33	3,589	618	5,205
2011까지	616	8,247	25	3,392	591	4,855
2012	35	547	8	197	27	35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담당자 김영우



##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 2-1.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 가. 고품질 쌀 생산

##### (1) 재배여건

전남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넓고 비옥한 평야지가 많은 곡창지대로서 고품질쌀 생산에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1년말 경지면적은 30만4천ha로 전국 1백69만8천여ha의 약17.9%를 점유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1.82ha로 전국 1.46ha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상조건은 연평균 기온이 13.5℃ 내외로 4월에는 11~12℃로 봄이 빠르고 7~8월에는 26~27℃로 고온이 지속되며, 10월에는 10~15℃로 벼농사에 대체로 적합할 뿐 아니라, 연간 강우량이 1,200~1,500mm로 많은 편이어서 일부 수리불안전답(21.3%)지구 이외에는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 하다.

반면에 토양조건은 약산성 PH5.5(적정 6.5)이며, 유효 규산함량 69ppm(적정 130)으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시용이 요구되며, 유기물 함량도 1.9%(적정 3.0)에 불과하므로 벅짚환원과 자운영 등 녹비작물재배 등 땅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2) 생산실적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명식품생산계획 제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2010년부터 유기농 선포식 원년이자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으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 하였다. 쌀 생산량은 2011년에는

82만9천톤을 생산하였고 2012년은 70만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12만9천톤이 감소하였고 전국 생산량 400만톤의 약17.5%를 생산하였다.

〈표 2-207〉 연도별 쌀 생산 추이

(단위 : ha, kg, 천톤, %)

연도별	전 남			전 국			전국대비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2005	199,366	471	920	979,717	490	4,768	19.3
2006	195,161	466	892	955,229	493	4,680	19.1
2007	193,064	428	816	950,250	466	4,407	18.5
2008	189,231	484	901	935,766	520	4,843	18.6
2009	183,533	492	913	924,471	534	4,916	18.6
2010	183,804	465	846	892,074	483	4,295	19.7
2011	174,930	477	829	853,823	488	4,224	19.6
2012	173,283	406	700	849,172	473	4,006	17.5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1천647ha가 줄어들었고, 단위 수량은 406kg으로 전년보다 71kg, 평년보다 69kg나 감소하였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쌀 수급조절 목적으로 추진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며, 수확량은 출수기(8월) 및 등등숙기(9월)에 불라벤·덴빈 등 태풍 3개가 우리지역을 지나면서 백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도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전년 422만6천톤보다 21만8천톤이 줄어든 400만6천톤이 생산되었으며 단위 수량도 473kg로 전년 477kg보다 4kg가 감소하였다.

### (3) 고품질 벼 대표품종 육성 추진

친환경농업 1번지, 브랜드쌀 평가 9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 쌀이 경기미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 또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이 많은 동진1호, 남평벼 등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품질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고품질 벼 재배점유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12년도에는 정부 20개 우리지역 적합 고품질벼 추천품종 중에서 우리 도 농가선호 품종인 일미, 새누리, 호품, 황금누리, 운광 등 5개 품종을 주력품종으로 재배하였으며, 이는 전체 벼 재배품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08〉 벼 품종별 재배현황

구 분	논 벼 재배면적 (ha)	주요 품종 재배현황 (ha)					
		계	일미벼	새누리	호 품	온누리	운 광
품종	174,930	125,075	40,758	25,540	23,265	19,942	15,570
비율	100%	71.5	23.3	14.6	13.3	11.4	8.9

고품질쌀 품종확대 및 벼 종자 갱신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 및 채종포산 등 우수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는 총 소요량의 52%인 3,824톤의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품종혼입 등으로 인해 밥맛을 떨어뜨리는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수품종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낮고 밥맛이 좋은 새누리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났으며,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호품벼 재배면적은 벼씨 발아 불량 사고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 (4) 들녘별(고품질) 쌀경영체 육성사업

쌀 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절감을 통한 쌀농업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하여 쌀농업을 경영하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350개소를 육성 계획에 있으며 우리 도는 '15년까지 100개소 육성 계획에 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은 나주 동강 쌀전업농 작목반(대표 박운서)과 순천 별량 고품질쌀 최적경영단지(대표 김용수)가 선정되어 510백만원(나주 270, 순천 240)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광역살포기, 벼씨발아기, 공동육묘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고흥 해창만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대표 임재섭), 해남 오뚝이영농조합법인(대표 천병규), 영암 서호 태백 쌀작목반(대표 이충우)가 선정되어 710백만원(고흥 270, 해남 220, 영암 200, 순천 100, 나주 100)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시설지원 사업보다는 농업경영 컨설팅 및 교육비로 32개소에 533백만원, 2012년에는 9개소에 53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5) 병해충방제사업 추진

쌀에 대한 소비성향이 친환경·고품질로 변화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도 과거 예방 위주에서 정밀예찰 후 적기방제로 바뀜에 따라 방제 횟수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2년 병해충 방제작업시 농약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농약안전사용장비 26천조(10억원)를 지원하여 병해충 방제작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매개체인 애멸구의 월동에 의한 줄무

니옌마름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비 1,594백만원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광역방제기를 이용 약 18만ha를 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가 좋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많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 (6)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를 실지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은 ha당 746천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597천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쌀 80kg 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1,260억원을 지급하였다. 고정직불금으로 13만 4,060농가, 17만 7,072ha에 1,260억원이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185천원, 평균쌀값 174천원+고정직불금 11천원)이 목표가격(170천원)보다 높아 지원되지 않았다.

〈표 2-209〉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현황

(단위 : 호, ha,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86,371	134,734	251,800	264,291	127,056	125,992
고정	농가수	174,810	172,270	151,328	144,915	138,529	134,060
	면 적	188,494	189,314	181,101	180,542	180,380	177,072
	금 액	133,572	134,734	128,708	126,496	127,056	125,992
변동	농가수	170,415	-	141,339	144,915	-	-
	면 적	176,388	-	167,780	180,542	-	-
	금 액	52,799	-	123,092	137,795	-	-

## (7) 향후, 쌀산업 육성 방향

전남쌀의 품질고급화로 경기미를 능가할 수 있도록 시군별 대표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쌀의 재배면적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쌀 수입증가 및 소비감소, 지역간 판매경쟁 심화로 품질고급화가 쌀 산업발전의 핵심과제로 부상되는 등 대표품종이 절실함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이덕신

### 나. 발작물 생산

#### (1) 생산실적

‘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 되었으나, 쌀보리는 행정기관에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재배를 지도하여 전년도에 비해 17%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맥주보리는 수입산 가격하락 등으로 국산선호도가 낮아 지면서 14%정도가 감소되었다.

맥류 전체 재배면적은 해남, 보성 등 주재배지역 파종시기 잦은 강우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맥류과종 확대지도에 힘입어 전년대비 26%정도 증가되었으며

두류, 서류는 전년도와 큰차이가 나지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재배되고 있다.

앞으로 발작물 생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발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강화하고, 해남·영암의 고구마와 보성지역의 감자, 영광 새찰쌀보리 등은 지역특산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0〉 2011 발작물 생산실적

구 분	계	맥 류	두 류	서 류	
재배면적 (천ha)	전 남	38.6	16	16	6.6
	전 국	169	42	83	44
생 산 량 (천톤)	전 남	208	52	22	134
	전 국	1,187	152	119	916
전국 대비 생산율(%)	17.5	34.2	18.5	14.6	

## (2) 보리 대체 작물 확대

‘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로 재배 면적과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대체 작물로 국산 밀과 사료용 청보리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산 밀 같은 경우 수입 밀 가격 불안정과 안전한 국산밀 선호 확대로 국산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사료 자급률 제고 및 사료 값 절감 대책으로 청보리 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재배지역에 기계화단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밭작물 수확 전용콤바인 총 49대 3,188백만원을 지원, 공급함으로써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괄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밭작물 전용 소형관리기로 전환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 2009년부터는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등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여 농가 일손 해결과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11〉 관리기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연 도	지원대수	지원액	재 원 별 (백만원)			
			도 비	시군비	용 자	자 담
계	5,421	17,121	2,409	5,831	1,525	7,356
2000~2003	49	3,188	319	955	1,525	389
2004	800	1,440	144	576	576	144
2005	800	1,440	144	536	576	144
2006	800	1,440	144	536	576	144
2007	800	1,440	144	576	0	720
2008	800	1,440	144	576	0	720
2009	5,600	14,000	2,800	4,200	0	7,000
2010	5,600	14,000	2,800	4,200	0	7,000
2011	5,600	13,527	2,200	5,133	0	6,194
2012	5,372	13,933	2,090	4,876		6,967

### (3) 발작물 브랜드육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작물 브랜드 경영체 40개소를 육성하고 농가의 규모화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일정수준의 자급률 유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 도는 2012년 1개소(고흥군 흙누리영농조합법인『잡곡』)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강진, 해남, 영광 등 4개소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4) 기타 발작물 생산

두류, 서류, 잡곡 등을 가공용 원료로 사용시 외국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국내 소비성향에 맞춰 나물콩, 검정콩, 햇고구마, 식용 풋옥수수 등 다양한 용도를 개발하여 생산토록 추진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이덕준

## 다. 농업재해대책 추진

### (1) 농업재해 양상과 피해발생

최근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가뭄,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매년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피해와 농업시설 피해로 대변 할 수 있으며 재해유형은 4~6월의 이상저온과 우박, 여름철의 풍수해·냉해, 태풍, 겨울철의 폭설, 폭풍, 동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 복구지원

복구지원 대상은 시군당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등의 피해면적이 50ha이상이고 서리, 우박, 설해는 30ha이상이며 지원 대상 시·군에 연접한 시군의 경우 지원기준에 미달된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유실·매몰 등 피해우심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등 직접지원과 생계지원,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였다.

〈표 2-212〉 최근 3년간 농업재해 복구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재 해 별	피해규모	복구비 지원
합 계			363,657,958
2010	소 계	8건	38,684,000
	2월 일조부족	시설작물 1,611ha	2,242,000
	3월 냉해	조생종 양파 1,212ha	651,000
	4월 저온	과수 7,246ha, 노지 16,015	14,835,000
	6. 8 우박	배 97ha, 고추 66, 담배 40 등	389,000
	7. 11 집중호우	벼 1,751ha, 채소 44 등	413,000
	9월 태풍 곤파스	벼 2,644ha, 과수 437 등	738,000
	10월 서리	단감 1,222ha, 뽕은감 883 등	3,414,000
	12월 폭설	하우스 84ha, 인삼 145, 축사 9ha 등	16,002,000
2011	소 계	6건	37,770,000
	2월 녹차동해지원	녹차 1,336ha	1,585,000
	4월 과수저온피해	과수 4,569ha	5,148,000
	4월 밀 저온피해	밀 5,490ha	4,530,000
	7월 태풍 메아리	과수 낙과 등 693ha	926,000
	7월 집중호우	벼 등 886ha	751,000
8월 태풍 무이파	벼 등 30,170ha	24,830,000	
2012	소계	4건	287,203,958
	4.3 강풍 피해	시설하우스, 작물 등 175.7ha	4,311,894
	7월 태풍 카눈	배 등 782.6ha	585,956
	8월 태풍 볼라벤, 덴빈	시설하우스, 벼 등 153,323ha	279,915,768
9월 태풍 산바	벼, 과수 등 2,294	2,390,340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김명식

## 2-2. 고소득 작목 육성

### 가. 과실생산 및 FTA기금사업 지원

#### (1) 과실생산

우리 도의 과수재배면적은 18,302ha로 전국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다. 배, 복숭아, 감 등은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추세이며, 복분자, 한라봉, 매실, 석류, 참다래 등은 틈새 및 웰빙과수로서 소득향상이 기대되어 주산지역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표 2-213〉 2011 과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톤)

구 분	계	배	단 감	매 실	유 자	참다래	무화과	기 타
농 가 수	37,196	4,230	8,582	7,129	2,523	1,216	1,252	12,264
재배면적	18,302	3,929	3,821	2,948	779	505	480	5,840
생 산 량	223,260	79,279	41,993	21,262	10,064	8,093	5,947	56,622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칠레·미 FTA협정 등으로 인한 과원구조 조정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반 과수의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 (2) 과수분야 FTA기금사업 등 지원실적

##### 1)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고품질과실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도는 6개의 자율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남중부과수육성에 47억 27천만원, 남부권 과수육성에 24억 3천만원, 전남북부과수육성에 65억 3천만원, 고품질 유자육성에 22억 8천만원, 영암과수육성에 17억, 참다래육성에 35억 3천만원 등 총 212억원을 지원하였다.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사업으로 나주시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에 걸쳐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부과수육성사업으로 순천시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4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 나주, 영암 과수산업육성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3억을 지원하여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2)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사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배, 감, 포도 등 주요과수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열대 기후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과수의 수입대체 및 과수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묘목 구입 등을 지원하며 2016년까지 50ha, 1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김재민

## 나. 특용작물 생산

### (1) 현 황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특용작물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2-214〉 2012 특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톤)

구 분	계	유지작물	약용작물	섬유작물	버섯류	기호작물	기 타 특용작물
재배면적	8,935	6157	1729	21	69	935	24
생 산 량	60,123	13263	18366	26	26599	1646	223

주) 유지작물(참깨, 땅콩), 약용작물(구기자, 작약, 산수유 등), 섬유작물(면화, 대마, 왕골 등), 기호작물(차, 버섯류(느타리, 영지, 팽이))

## (2) 사업 추진실적

품목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였고, 지역의 비교우위 특화품목을 발굴 집중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 167억원, 벼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생산농가 지원에 67억원을 투자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오선옥

## 다. 잠업 생산

### (1) 현 황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기존 사업추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배(사육) 기술지도 등으로 잠업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5〉 2012 잠업 생산현황

(단위 : 호, ha, 상자, kg)

양잠 농가수	뽕밭 면적	누에사육					누에생산량				
		계	건조 누에	동충 하초	생누에	누에 고추	계	건조 누에	동충 하초	생누에	누에 고추
201	329	1,872	1,502	11	329	30	15,153	10,091	412	2,900	1,750

## (2) 사업추진 실적

최근 누에와 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묘목·친환경양잠자재 등을 지원하여 잠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고 생산된 양잠산물의 저온처리를 통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1억원을 투입하여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2개소를 구축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오선옥

## 라. 시설채소

### (1) 현 황

우리 도의 시설채소 주 품목은 수박,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딸기, 멜론, 파프리카 등이고 시설하우스 면적은 2012년말 현재 4,451ha로 전국의 약 10% 수준이며, 신선채소류의 수요 증대 및 수출 등으로 인한 원예농가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시설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의 개발지역 편입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216〉 2012 시설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양채류	기타
재배면적	8,003	3,717	2,702	350	61	241	932
생산량	325,024	167,523	97,109	14,987	1,451	8928	35,026

\* 재배면적은 연면적으로 연간 평균 1.3회 작물재배

## (2) 사업 추진실적

2012년도에 도 자체 지원사업인 시설원예 수출인프라 구축과 국비사업인 품질개선사업 등을 통해 약 97.5ha의 시설을 증개축 하는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은 물론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가온온실 면적의 약 92%가 유류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경유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 2012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예산 421억원을 확보하여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시설 3ha를 설치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다접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251ha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평균 30~7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정원진

## 마. 노지채소

### (1) 현 황

노지채소에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이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김장채소인 가을 배추·무 생산량은 전국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표 2-217〉 2012 노지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톤)

구 분	계	양 녘 채 소					김 장 채 소			기 타
		소 계	고 추	마 늘	양 파	기 타	소 계	배 추	무	
재배면적	57,388	53,022	27,940	9,115	10,715	5,252	4,133	2,937	1,196	233
생 산 량	1,988,867	1,557,813	698,958	97,383	582,904	178,568	406,058	310,311	95,747	24,996

## (2) 사업 추진실적

노지채소의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배 의향면적 및 작황을 조사하여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적정생산을 유도하였고,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채소수급안정기금을 이용 가격 하락 시는 무와 배추의 경우 포전수매사업을 마늘, 양파의 경우는 비축 수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재배를 위해 시군별 지역특화품목 작목사업으로 290ha에 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우량 씨마늘을 생산·보급하여 마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주산지인 무안군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6억원, 친환경 무청 재배·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영암군에 6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주산지 9개시군이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여 적정재배, 출하조절, 자율감축 및 저장·가공·수출 등 책임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7개시군에 231억원을 조성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전국 지정물량(23개소)의 26%(6개소)를 우리 도 무안군(양파), 신안군(마늘), 진도군(대파), 해남군(겨울배추), 화순군(약용작물), 고흥군(마늘) 등에 유치하여 브랜드 경영체별로 3개년 간 95~170억원씩 총 6개소에 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중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이신환

### 3. 농식품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 3-1. 농식품 유통혁신

##### 가. 우수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육성

남도미향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하고 전남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개발하였다.

남도미향 회원사 제품은 조미료, 식품첨가물 등 4개류('08. 6. 9), 양념류의 추가('08. 6. 18)로 총 5개류의 국내 상표등록을 마치고 해외시장 브랜드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에 등록 출원('07. 11. 7)하여 국제상표 등록을 마쳤다.

##### (1) 사단법인 설립과 브랜드 파워 강화

남도미향은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2006년 5월 30일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2012년말 현재 7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업체간 품질개선, 마케팅 전략 등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남도미향 참여업체의 판매확대를 위해 2009년 4월 27일에는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회원업체 51%, 전문CEO 49%)하여 남도미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매출액이 설립년도인 2009년 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1억 원으로 162%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 (2) 업체 선정 및 운영 성과

2012년 현재 남도미향의 제품은 총 74개사 17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인 간장, 된장, 젓갈 등과 천연조미료, 미역, 김, 다시마, 과실, 채소, 가공식품 등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각양각색의 제품 생산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신규 업체 선정은 매년 시군으로부터 우수한 제품을 추천받아 전문 컨설팅 기관의 평가를 거쳐 전남 브랜드마케팅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되며 제품의 인증기간은 1년이다.

2012년 운영성과는 고용인원은 74개 업체에 865명, 매출액은 1,990억 원, 수출액은 4,310만 달러이다. 특히 LA 한인축제 참가 등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였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명절 특수를 겨냥한 여성잡지 광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고 있다.

〈표 2-211〉 남도미향 참여 업체 및 품목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참여업체 (개)	51	57	55	57	72	74
품 목 수 (개)	80	134	132	138	168	171
매 출 액 (억원)	1,228	1,558	1,482	1,910	1,980	1,990
고용인원 (명)	633	729	702	792	855	865
수 출 액 (만달러)	2,476	2,887	3,465	4,255	4,300	4,310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유통기획담당 나윤수, 담당자 배 준

## 나. 남도장터 운영

‘남도장터’는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전남 농수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에서 2004년에 개설한 농식품 위주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식품의 매출 증대 및 타 쇼핑몰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매출실적 저조 및 민원 야기, 상품관리 소홀업체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전남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과의 제휴, E-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판매행사 등을 병행한 온·오프라인 판촉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축제별·월별 기획이벤트,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여 매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남도장터’는 개설이후 2006년에 매출액 10억 원, 회원수 7,273명에서 2012년에는 매출액 165억 원, 회원수 48,200명으로 매출액은 1,550%, 회원수는 562%가 증가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2009년에 ‘유기농멤버십’ 코너를 개설하여 2012년에는 8,000명의 정규회원을 확보하고 2억 1백만 원의 매출성과를 거두었다.

〈표 2-212〉 남도장터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 출 액	1,015	1,505	1,605	4,300	10,200	15,100	16,500
회 원 수	7,273	7,817	10,650	18,900	33,500	47,500	48,200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유통기획담당 나윤수, 담당자 음영규

#### 다. 직거래 판매행사

우리 도는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 먹을 수 있고, 농어업인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직거래 판매행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도권외 정부청사(3개소)와 어린이재단, 강동구의 양지·고덕시장, 지하철역 등 9개소에서 정기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고, 신세계 이마트 등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200회에 걸쳐 직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매장에 지역 농수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고정 납품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하는 직거래 및 농특산물 판매장과 농부장터를 운영(4~11월)하는 등 공세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250억 원 상당의 전남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유통기획담당 나윤수, 담당자 배 준

#### 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최근에는 농식품 유통시장에서 고성장 추세에 있는 TV홈쇼핑 방송 판매를 통해 전남 농수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국내외 홈쇼핑에 판매를 추진하는 도내 업체에 대해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농수특산물을 홈쇼핑에서 신규로 판매를 시작할 경우 국내는 업체당 3백만 원까지, 국외는 5백만 원까지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GS 등 국내 5대 TV홈쇼핑에 방송 판매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도내 9개 업체(국내)에 대해 2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3〉 TV홈쇼핑 판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 출 액	10,800	12,500	13,900	20,400	25,000	37,400	44,700
참여업체	29	37	5	75	82	45	38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유통기획담당 나운수, 담당자 음영규

### 3-2. 전남쌀 홍보 및 판매

#### 가. 전남쌀 생산 및 수급

전남은 2012년도에 재배면적 173천ha에서 700천 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쌀은 공공비축 95천 톤, RPC 자체매입 347천 톤, 농가소비 138천 톤 등 580천 톤은 자체처리 하고 나머지 120천 톤은 소비자 직거래, 학교급식, 대형유통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 136.4kg에서 1990년 119.6kg, 2000년 93.6kg, 2003년 83.2kg, 2005년 80.7kg, 2007년 76.9kg, 2009년 74.7kg, 2010년 74.0kg, 2011년 73.0kg, 2012년 69.8kg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제 폐지, 2004년 쌀 재협상으로 MMA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2006년부터 시작되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쌀 산업은 국내 지역간 경쟁에서 이제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세계 주요 쌀 생산국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05년부터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쌀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와 함께 수도권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고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나.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납품 확대**

수도권지역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전남쌀의 학교급식 납품을 선점하기 위해 시군과 농협 등이 연계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 15천 톤을 납품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1,934개 초·중등학교장들에게 박준영 도지사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전남산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친환경쌀을 3,515개 초·중·고교에 15천 톤(390억 원)을 납품하여 전국 친환경 쌀 공급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 **다. 쌀 대량소비처 전남쌀 판매촉진 성과**

도 및 시군 공무원, 농협·RPC 합동으로 ‘전남쌀 수도권 판매촉진단(22개반 110명)’을 구성 운영하였다. 판촉단은 수도권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대형 유통매장 등 대량소비처에 전남쌀 우수성 홍보 및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4,431억 원, 수도권 향우식당에 53억 원, 친환경쌀 수도권 등 학교급식 납품 607억 원, 전남쌀 수출 2억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1,056억 원, 공직자 쌀 팔아주기 248억 원 등 총 6,397억 원의 쌀을 판매하였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에게 미질이 좋은 전남쌀 구입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고객화 하여 전남쌀의 지속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쌀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평생고객 택배비(사업량 1,866천 포/사업비 1,800백만 원)를 지원하고 아파트단지 및 기업체 등 수도권 홍보·관측활동을 위해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비(사업량 200천 포/사업비 500백만 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명품 브랜드쌀(전국 베스트 입상 4개 브랜드)과 친환경 전남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의 직거래행사를 개최하고 귀성객 대상 전남쌀 관측행사를 개최하였다.

도와 시·군 직원, 출향인,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2년도에는 280천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2,662천포/20kg, 1,144억 원 상당의 쌀을 판매하였다.

민·관 노력의 결과로 전남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품질위주의 정책으로 쌀 산업 정책이 전환되어 전남쌀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전남쌀이 10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쌀로 평가받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전남쌀의 생산단계부터 미질관리를 위해 재배기술 지도·관리, 저장·최첨단 도정시설 확충, 수시 식미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한 결과이며 또한 확보한 고객의 구매성향을 잘 분석하여 생산과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쌀 사랑 마니아 100만 명을 평생 고정고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객 최우선의 쌀마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2012년 서울 쌀 박람회 및 발효식품전’ 행사(2012. 11. 6. ~ 11. 9.)에 참가하여 대량 소비처 마이어 상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군별 대표 브랜드 쌀,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선정된 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친환경 쌀의 미질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판촉활동을 전개하였다.

## 라.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최다 선정 및 전남쌀 홍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2년 전국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쌀 브랜드가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03년 4개, '04년 3개, '05년 4개, '06년 5개, '07년 5개, '08년 4개, '09년 4개, '10년 5개, '11년 4개, '12년 4개)되었다. 특히 2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시 인증이 부여되는 「Love 米」에 영암 '달마지쌀 골드', 강진 '프리미엄 호평', 무안 '황토랑 쌀', 함평 '나비쌀'이 선정되어 전국 8개 중 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한 시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쌀이라는 것을 TV(KBS-2, MBC)와 라디오(CBS, MBC), 신문(중앙지 11, 지방지 14), 월간지(7개사), 지하철 전광판(2개소), 인터넷 사이트(6개사)에 집중 홍보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전남쌀의 우수한 품질을 알려 판매 확대에 이어서도 노력하고 있다.

### 〈2012년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나비쌀 (함평군)	녹차미인보성쌀 (보성군)	사계절이사는집 (영광군)	아르미쌀 (장흥군)

또한 전국 12대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하고 전남 쌀을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로 품질고급화를 위해 2012년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양 금성농협 “대숲맑은쌀”, 정남진 농협쌀법인 “미셀위 아르미쌀”, 영암농협쌀법인 “달마지쌀골드”, 보성 농협쌀법인 “녹차미인보성쌀”, 함평농협쌀법인 “나비쌀”, 영암 군서농협 “하늘아래한쌀”, 강진농협쌀법인 “프리미엄호평”, 영광농협쌀법인 “사계절이사는집”, 무안농협쌀법인 “황토랑쌀”, 해남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 등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하였다.

도 자체 평가대상은 도내 농협RPC 생산 브랜드 중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17개 브랜드 쌀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전남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여 선정된 것이다.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쌀마케팅담당 김춘성, 담당자 오수미, 이종원, 서동순

### 3-3.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 가. 국내외적 여건변화

##### (1) 국제적 여건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이후 최소시장 접근물량(MMA)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0.5%씩 증가하여 2004년까지 쌀 소비량의 4%인 205천 톤을 의무 수입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MMA를 2005년 226천 톤에서 2014년 409천 톤까지 매년 균등 증량 수입해야 하고, 2005년부터는 시장가격 구입, 매출방식에 의한 공공 비축제가 시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2) 국내적 여건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1987~1996년까지는 재고 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으로 연평균 2만4천ha가 감소하여 1996년에는 105만ha까지 줄었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냉해피해로 재고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상승하면서 1996년 이후 재배면적이 연평균 6,700ha씩 늘어 2001년에는 108만 3천ha가 되었으며, 생산량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2.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논 면적 감소와 밭작물 직불금 지급 등으로 논 벼 보다 소득이 높은 밭작물 재배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벼 재배면적은 84만 9천 ha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 쌀 생산량도 기상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 벼 재배면적 감소로 400만 6천 톤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 쌀 생산량은 440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쌀 생산량이 429만 5천 톤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2년산 쌀 생산량으로 400만 6천 톤까지 감소함에 따라 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양정제도를 개편, 그동안 가격지지 역할을 수행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직불제, 공공비축제를 시행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산지, 도소매 쌀값 동향과 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나. 전남의 양정 현황과 관리제도의 개선

#### (1) 벼 재배면적과 매입실적

2012년도 우리 도 벼 재배면적은 173천ha이고 생산량은 700천 톤으로 2011년에 비하여 면적은 1.6천ha 감소, 생산량은 출수기 및 등숙기

에 8월말 태풍 블라벤, 덴빈의 영향으로 백수피해가 있어 128천 톤이 감소했다.

특히, 벼 낱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9월~10월 상순)에 9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 시간이 전년보다 적어 낱알이 충실하게 영글지 못하여 2012년산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공공비축제도는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이다.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최근 7년간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15〉 공공비축 미곡 매입

(단위 : 정곡, 천톤)

연 도 별	전 국	전 남	전국 대비
2006	504	114	22.6%
2007	432	100	23.1%
2008	400	100	25.0%
2009	710	183	25.7%
2010	426	103	24.1%
2011	261	65	24.8%
2012	370	95	25.6%

## (2) RPC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

벼의 건조보관·가공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269억 원이 투입되어 총 291개소에 지원되었으며, 일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규시설 설치는 줄이고 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건조·저장시설 4개소(통합 2, 일반 1, 저온저장시설 1)에 국비 2,550백만 원이 투입 되었다.

2007년부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RPC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8개소에 201억 원이 투입되어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쌀 경영체(농협 등) 육성으로 전남쌀 품질향상에 주력하였다.

〈표 2-216〉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농 협		민 간	
		RPC	DSC	RPC	DSC
전 남	48	27	5	14	2

### (3) 정부양곡 보관관리

2012년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1,315동에 건평은 446천 m<sup>2</sup>으로 보관능력은 856천 톤이며, 2012년도 12월말 재고량은 294천 톤이다.

〈표 2-217〉 정부양곡 보관창고 등급별 현황 및 보관능력

(단위 : 동, 천톤)

구 분	계	특 급	1 급	2 급	3 급	등 외	새마을
창 고 수	1,315	30	1,214	62	1	4	4
보관능력	856	74	749	29	1	1	2

또한 양곡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1창고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정부양곡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창고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4) 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수입쌀 관리

중국쌀 등 우리쌀과 모양이 같은 중·단립종 쌀들이 MMA물량으로 도

입됨에 따라 이들 쌀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부정 유통될 우려가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50개소의 수입쌀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표 2-218〉 연도별 MMA쌀 도입 현황

(단위 : 톤/현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량 (전남)	114,016 (15,824)	142,520 (-)	173,000 (23,300)	199,528 (31,200)	228,032 (26,500)	225,575 (26,300)	245,922 (29,400)	242,602 (29,400)	248,402 (30,500)	250,132 (30,540)	251,688 (30,610)	266,463 (30,757)	282,228 (32,454)
산지	태국, 중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중국	중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쌀마케팅담당 김춘성, 담당자 이종원, 서동순

### 3-4.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충

#### 가.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창출

##### (1)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우리 도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생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몸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을 크게 올리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선도적인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은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교육과 농업분야에서 전국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의 단계적 확대 공급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입단계인 2004~5년에는 시범학교 588개소를 선정하여 258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도내 전체 학교 2,280개소 351천 명에 대하여 28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식재료 중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로 100% 대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352천 명 517억 원, 2008년 356천 명에게 556억 원(보조 357, 자담 199), 2009년에는 595억 원(보조 357, 자담 238), 2010년에는 582억 원(보조 349, 자담 233)을, 2011년에는 576억 원(보조 346, 자담 230)을, 2012년에는 588억 원(보조 353, 자담 235)을 지원하였다.

〈표 2-214〉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천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학 교 수	2,048	2,280	2,339	2,398	2,430	2,492	2,498	2,506
학 생 수	334	351	352	356	359	344	334	334
지 원 액	17,851	28,714	51,678	55,587	59,512	58,206	57,619	58,803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특산물유통담당 이상권, 담당자 김영석

## 나. 「시군 유통회사 설립」 추진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국가간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경쟁시대가 되었으며,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간편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산지로부터 대량으로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직접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저장·가공·판매까지 전 처리과정을 담당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화·규모화된 유통주체의 출현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전남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줄 주체가 부족하여 생산농기는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홍수 출하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및 판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까지는 시군 유통관계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과 생산자 단체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2008년부터 시군별로 유통회사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도에서는 유통회사 설립 모델 및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제공하고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관계 공무원과 관련 민간기관·단체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통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더 나아가 시군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회사를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완성,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나주, 고흥, 화순, 영광, 완도, 신안 등 정부지원 시군 유통회사 6개소와 해남 배추, 녹색계란, 곡성멜론, 전남딸기 등 도 자

체 품목별 유통회사 22개소를 합해 총 28개소의 유통회사를 설립·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품목별 주식회사를 확대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특산물유통담당 이상권, 담당자 유덕규

### 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확충 지원

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수확과 동시에 출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수확기에는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 등으로 생산농가가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2ha 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형저온저장고(9.9㎡형)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3,281동에 21,84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생산 농가로부터 농림사업 중 농민에게 가장 큰 수혜를 준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을 통해 수급안정과 가격조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가 및 생산자조직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특산물유통담당 이상권, 담당자 황용주

## 3-5.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

### 가. 비교우위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성, 역사성, 차별성을 가진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토산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 중앙 공모에 응모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소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 선정지구 부터는 3년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생산·제조·가공·R&D·마케팅 등에 관한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S/W 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 응모하여 전국 159건 중 35건이 선정되어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 투자 하였다.

〈표 3-7-1〉 연도별 사업선정 및 사업비 투자액

(단위 : 개소, 억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선정사업
계	35	830		35개소
2007	3	30	1년	보성 대마, 장흥 호박, 진도 구기자
2008	8	80	1년	여수 돌산갯, 광양 고로쇠, 고흥 유자, 화순 잠업, 장흥 표고, 영암 무화과, 장성 감, 완도 생약초
2009	7	210	3년	순천 갈대, 나주 쪽, 광양 매실, 담양 한과, 강진 도자기, 영광 모싯잎송편, 진도 울금
2010	7	210	3년	나주 홍어, 고흥 석류, 장흥 헛개, 해남 고구마, 완도 전복, 진도 검정쌀, 신안 함초
2011	5	150	3년	담양 죽순, 곡성 목화, 구례 우리밀, 장성 편백, 완도 비파
2012	5	150	3년	담양 블루베리, 장흥 청태전, 강진 된장, 영암 대봉감, 영광 찰보리



2013년도에는 신규지구 5개소(보성 키조개, 장흥 무산김, 무안 마늘, 함평 호박, 장성 잔디 등), 기성지구('11, 12선정) 10개소를 포함해서 총 15개소에 15,000백만 원(국비 7,500, 도비 900, 시군비 3,600, 자담 3,000)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결과 전국 28개소중 우리 도에서 여수 해풍쭈, 곡성 토란, 장흥 표고버섯, 고흥 유자한우, 강진 황금한우, 장성 마을반찬, 신안 건정(마른생선) 등 7개사업이 확정되어 8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전남은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산업화가 가능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산업화해 놓어준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식품산업담당 박우육, 담당자 유재석

## 나.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전국의 20%)하고 있으나, 주 소비지인 수도권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판로가 불리하고 저장 가공시설이 부족해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수급불안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인 증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 업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2억 원~8억 원 규모로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공모)을 거쳐 식품관련 전문가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11년까지 20개소에 11,400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에는

여수시의 ‘해풍축영농조합법인’ 가공시설 등 8개 법인에 총 5,00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1,500, 자담 1,000)을 투자하였다. 2013년도에는 나주시 ‘농업회사법인(주)골든힐’ 가공시설 등 6개 법인에 총 4,250백만원(국비 2,125, 시군비 425, 자담 1,700)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식품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자 ‘강소 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을 담양 유기농야채수, 보성 유기농녹차, 강진 떡류 등 6개소에 800백만원(국비 400, 시군비 80, 자담 320)을 투입하고,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사업으로 나주 ‘농업회사법인(주)햅시바’ 가공시설 등 4개소에 1,950백만원(국비 975, 시군비 195, 자담 780)을 투입하여 안전식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들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015년까지 전남의 식품 매출액이 2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식품산업담당 박우육, 담당자 유재석

#### 다. 지역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으로 차별화 추진

개방화 시대 농어업은 식품의 안전성 보장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농수특산물을 생산·판매해야만 제품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 다양한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 그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도내 농수특산물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현지심사 및 안전성 검사과정을 철저히 거친 후 3년간 전라남도 통합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매출증가에도 크게 기여해 사용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18차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94개 업체 1,021개 품목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을 해 줌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에 고정납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식품산업담당 박우육, 담당자 김정관

### 3-6. 전통식품산업 육성

#### 가. 전통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식 세계화 등을 통해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전남의 우수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도에 '전라남도 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①김치 등 절임식품 육성 ②된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 산업화 ③전통술 산업 육성 ④떡·한과·전통엿 등 전통식품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012년도에 우선적으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으로 여수나래식품의 김치가공시설, 담양 죽향도가의 막걸리제조 현대화 시설 지원 등 총 13개 업체에 84억 원(도비광특 42, 시군비 8, 자담 34)을 투자하였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해 총 86개 업체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유기가공식품인증 업체의 30%를 차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지자체 쇼핑물 판매 허용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여 2012년 12월에 시군 홈페이지에 링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 1인 1일 판매량도 100병까지 확대되는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전통식품담당 이귀동, 담당자 주경천

## 나. 마을반찬 사업 내실화 추진

농어촌 부녀회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반찬 산업화 사업’을 전남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46개소의 마을반찬 사업장을 육성하였다. 또한, 2012년에도 총 10억 원(도비 2, 시군비 5, 자담 3)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개소를 신규로 육성하였으며, 2012년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반찬 사업장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농산물 818톤을 사용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8억 원의 매출(2009년 대비 4배 증가)을 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전통식품담당 이귀동, 담당자 주경천

## 다. 공동마케팅 및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전통식품 등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일산 킨텍스), 푸드위크(서울 코엑스), 광주국제식품전(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각종 국제박람회에 56개 업체가 참가하여 바이어 구매약정 38건에 7억 원의 거래가 성사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마을반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과 함께 서울에 2개소, 광주에 6개소 등 총 8개소에 마을반찬 코너를 개설·운영하여 마을반찬의 고정적 판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마을반찬특별전 개최, 내일신문 등을 통한 언론 홍보, 국제농업박람회 전통주 시음회, 유기가공식품 안내 소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반찬 사업장 대표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반찬 사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비롯해 유기가공식품 인증교육, 김치반·전통주반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식품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전통식품담당 이귀동, 담당자 주경천, 윤진옥

## 3-7. 수출농업 육성

### 가. 수출기반 확충

2001년에 10개소의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유통시설 등 수출기반을 확충하여 지금까지 총 24개단지를 신규조성하거나 시설을 보완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육성한 원예전문단지에서 생산한 신비디움, 국화, 방

올토마토, 메론,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을 2012년에 약 43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물류비 확대,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 등을 통해 시설원에 생산단지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수출농가 교육

수출이 유망한 품목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신기술 교류, 재배작기 조절, 연중 수출체계 확립으로 수출농가의 자생력 배양과 신용 있는 수출업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확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해외시장 정보, 수출농가 의식개혁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확대 및 수출농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였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김용호, 담당자 정원진

##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 4-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계획

#### 가. 계획수립 배경

2006년부터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의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녹색축산 육성기금 413억원을 조성해 가축 운동장 구입, 마을안·도로변 축사이전, 친환경축산시설 설치, 가공유통망 확충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11~'15)계획을 수립, 18개 사업 7,181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친환경 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육성목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를 2006년 5호에서 2015년까지 10,000호로 확대하여 친환경축산 실천과 함께 가축분뇨를 2012년부터 전량 육상 처리할 계획이다.

#### 다. 사업계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개 사업에 국·도비, 융자 등을 포함한 7,1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2,68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9〉 녹색축산 5개년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 원 별 내 역(계획)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계	718,114	264,236	32,482	124,421	176,440	120,535
2011	88,161	26,406	3,032	28,326	14,172	16,225

연도별	재 원 별 내 역(계획)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용 자	자 담
2012	193,766	46,996	5,958	19,106	101,210	20,496
2013	127,989	54,928	7,419	22,328	18,886	24,428
2014	149,689	64,348	8,194	26,811	20,606	29,730
2015	158,509	71,558	7,879	27,850	21,566	29,656

## 라. 추진실적

구제역 미 발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전국 1위로 “청정 전남”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실적은 2006년 5호에서 2012년에는 3,621호로 전국 9,308호의 39%를 점유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친환경 조사료 생산도 전국의 33%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녹색한우 등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소비자단체 주관 8년 연속 우수상을 획득하였으며,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축사기반 구축을 위한 녹색축산육성기금 413억원을 조성하여 가축운동장 확보,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에 힘쓰고 있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김태원

## 4-2. 가축개량 및 증식

### 가. 사육현황

주요가축(소, 돼지, 닭) 사육은 한육우의 경우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광우병 등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되어 일시적으로 소비는 큰 폭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2009년 445천두에서 2010년 480



천두, 2011년 510천두, 2012년 505천두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젖소는 2003년 하반기에 잉여원유 증가에 따른 생산 쿼터제 시행 이후 2005년 32천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34천두, 2012년 28천두이며, 원유 기본가격은 2011년 8월 원유가격협상을 통해 1당 834원으로 2008년 704원에 비해 130원 인상된 가격이다.

전업농가(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기준)는 2012년도말 기준 한·육우 2,370호, 젖소 294호, 돼지 320호, 닭 373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20〉 주요 가축사육 현황

(단위 : 천호, 천두·수)

연도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2008	35	403	0.4	32	1.1	779	0.2	12,043
2009	34	439	0.4	31	1.3	830	0.2	14,002
2010	35	519	0.4	29	1.3	912	0.3	17,440
2011	33	510	0.3	28	1.2	888	0.3	16,349
2012	29	505	0.2	28	1.1	995	0.2	15,060

※ 닭은 3,000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임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위영초

### 나. 진도개사업소 지원

진도개사업소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7억원 등 총사업비 22억원으로 부지 11,848㎡에 연건평 1,269㎡로 지난 1999년 11월 13일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연구실 595㎡, 사육장 410㎡, 진료실 및 격리사 93㎡, 관리사 86㎡ 등이며 연구 및 진료장비는 84종에 156대를 갖추고

있다.

진도개사업소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 및 인공수정기술개발 시험, 질병예방 및 사양관리 등 체계적인 시험 연구와 개량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진도개 이미지 관광화 계획의 일환으로 월드도그쇼 및 품평회 개최 등 진도개 산업육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2010년까지 2년에 걸쳐 고유혈통보전 및 질병진료 등을 위해 진도개 질병관리센터를 건립(1,477백만원)하였으며, 세계적인 명견 육성을 위하여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하여 매년 가축방역사업비 285백만원을 투입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손순옥

### 4-3. 축산업의 구조개선

#### 가.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축사 기반조성(진입로 확포장, 전기인입 시설, 부지정리 등), 사육시설(축사, 관리사, 창고 등), 이에 수반되는 기계, 자동화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1995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999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도비와 시군비로 이자차액 2%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1%로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업종합자금 취급조합(농협군지부 또는 축협)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 나.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운영

친환경축산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녹색축산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 및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축사화재 발생농가에 보조금 24호 187백만원, 축산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에 11호 2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축사화재 발생농가 19호 195백만원과 축산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에 13호 33억원, 2011년에는 축사화재 발생농가에 31호 298백만원, 축산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에 47호 30억원, 2012년에는 축사화재 발생농가에 26호 217백만원, 축산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에 51호 97억원을 지원하였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가축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축산실천에 필요한 사업의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한광진

## 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조성과 한·미 FTA 등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축사 개·보수는 물론 마을안·도로변 축사이전, 조사료 TMR배합기, 방역시설 등 축사시설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767농가 1,42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지원기준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로써 소·돼지·닭·오리 등 축종별 전업농가가 해당되며 등록면적 내

에서 지원하였다. 지원조건은 보조사업 국비30%, 융자50%, 자담20%이며 융자사업 융자80%, 자담20%로 3년거치 7년 상환이다.

앞으로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 및 기존 마을도로변강(호수) 등에 위치한 축사이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이영남

### 라. 마필산업육성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04년 전남 순천시 낙안읍에 경주마 목장 1개소를 조성하였다.

20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목장에는 경주마 10두, 실외연습장, 외승코스 등을 갖추었고, 생산된 자마(子馬)는 한국마사회에 경주마로 공급되고 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마장 조성사업은 '07년 1개소(순천), '08년 1개소(신안), '09년 2개소(영암, 장성), '10년 2개소(곡성, 영광)를 완료하였고 '12년에는 장흥 1개소 15억원, 곡성 1개소(말구입)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강진 1개소 7억, 담양 1개소(말구입) 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생승마체험으로 '12년 1,157명 3.5억원, 유소년 학생승마단 2개소(곡성, 진도) 3.2억원을 지원하였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곤충담당 배윤환, 담당자 이기호

### 마. 축산분뇨의 자원화

#### (1) 추진성과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축사 m<sup>2</sup>당 한우 30천원, 젓소 35천원, 돼지 74천원, 닭 21~34천원씩 지원하며, 보조 20%, 용자 60%, 지방비 20%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하여 축산 농가당 개별시설 168개소, 한센정착촌 5개소,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5개소, 액비저장조 200기,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액비살포비 11,840ha, 액비부속도 판정기 13대, 액비 성분분석기 3대를 지원하였다.

〈표 2-22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단위 : 개소, 억원)

연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개 별	공 동	
2008	340	336	4	120
2009	380	378	2	148
2010	305	301	4	228
2011	332	331	1	153
2012	320	317	3	177

## (2) 앞으로의 발전방향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여 자원화하기 위해 액비저장조와 액비 살포장비, 액비 살포비 지원을 확대해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면적을 대폭 늘려 나가는 한편, 악취 민원 등으로 개별 처리하기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곤충담당 배윤환, 담당자 고영민

## 4-4. 한우사육기반 확보 및 고급육 생산

### 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실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암소 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4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적 성격의 제도이다.

1998년 도입하여 4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농가 호응도가 높아 2000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12년에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년도말 가입암소두수 110만두 이상은 미지원, 100~110만 미만은 10만원, 90~100만 미만은 30만원, 90만두 미만은 40만원까지 보전금을 차등 지급한다.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으로 하락하여 차액을 지급한 사례는 2008년 41천호 73천두 130억원, 2011년 14천호 25천두 24억원을 지급한 경우이며, 이는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두수는 2006년 123천두, 2007년 154천두, 2008년 175천두, 2009년 179천두, 2010년 161천두, 2011년 173천두, 2012년 138천두로 한우산업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나.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FTA 등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우리 도 대표 5개 명품브랜드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당 3개년 계획으로 매년 2~5억원 씩 총 6~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지리산순한한우와 녹색한우, 함평천지

한우, 영암매력한우, 담양대숲맑은한우를 육성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주관 9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다.

#### 《2012년 한우브랜드 평가결과》

- 소비자시민모임 우수브랜드 인증 :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매력한우, 함평 천지한우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평가 우수브랜드 : 최우수상(녹색한우)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장용연

### 다. 한우 경진대회 개최

우량 한우의 선발·시상으로 소비자에게 전남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매년 개최해 오던 한우 품평회를 그 동안 IMF와 구제역 방역관계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5년만인 2001년 11월 9일 나주 가축시장에서 제25회 한우 품평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우수축 16두를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2002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도축 후 평가하는 “고급육 품평회”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2003년에는 “생축 및 고급육 품평회”로 103두가 출품되어 27두를 선발 시상하였다.

2004년에는 한우협회의 협조로 “한우인 한마음행사”와 병행하여 풍성한 품평회가 개최되어 98두가 출품되어 27두를 시상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선거관계로 행사를 거행할 수 없어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07년부터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협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나주 가축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

2008년에는 “친환경축산 메카 전남, 녹색축산으로 자리매김”이라는 주제로 제30회 한우개량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도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축산농가의 의욕을 드높였다.

2008년 싸스 발생 및 2010~2011년 구제역, AI 발생 등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2012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가 부활되면서 전국대회 출품 축 선발을 위한 제31회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가 나주 가축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제31회 한우경진대회는 우수축 선발을 위해 개별, 농장 등 4개부문 11농가에 대해 시상 및 시군별 종합시상에서는 영암군이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한우홍보관 운영, 축산물 시식회 등과 함께 개최되었다. 또한 12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는 고급육품평회 부분에서 영암군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농장부문에서도 고흥군에서 최우수상, 영암군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라남도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장용연

## 라. 농업박람회 녹색축산관 운영

한우경진 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축산 한마당 행사는 녹색축산의 본격 추진과 함께 친환경축산 우수농장 홍보, 우수축산물 전시·판매관 운영, 축산체험장 운영 등으로 소비자와 조화되는 한마당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 제8회 농업박람회와 연계하여 “녹색의 땅 전남, 친환경 1번지”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녹색축산 한마당” 행사로 개최하여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전남 친환경축산물 좋아요!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슬로건으로 녹색축산관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녹색축산관을 운영하여 관람객과 함께하는 한마당행사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25일간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 라는 주제로 2012국제농업박람회 친환경축산관을 운영하여 FTA 타결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세계인에게 전남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과 우수 사례농가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축산물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김숙현

### 라. 한우산업안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한우 사육 및 품질고급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4,424억원을 투입하여 한우번식 기반육성 등 20개 단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 결과 사육두수는 199천두에서 530천두로 확대되었고, 1등급 출현율은 61.4%(전국 58%)에 이르는 등 한우산업이 농가 소득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과잉과 소비 감소,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 증가 등으로 소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4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우산업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유통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한우 사육두수 감축 및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23개 사업과 2016년까지 사육두수를 44만두로 유지하여 한우산업을 농가소득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32천ha에서 65천ha로 확

대하여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고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5개소 생산기지를 육성하고 더불어 품질고급화를 위한 1등급 출현율을 80%로 높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인증농가를 1,500호에서 7,000호까지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지 축산물 가공시설을 81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브랜드가맹점을 20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사육두수를 53만두에서 2016년까지 44만두 수준으로 감축을 유도하여 한우 산업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22〉 한우산업안정 종합대책 투자계획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2012	20종	157,491	78,851	7,644	20,336	50,660
2013	20종	198,525	103,644	8,190	22,713	63,978
2014	19종	195,810	98,499	8,850	24,693	63,768
2015	17종	191,620	87,099	9,651	26,738	68,132
2016	16종	204,830	93,695	10,319	28,713	72,103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장용연

## 4-5. 선제적인 동물방역대책 추진

### 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매년 소·돼지·닭·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꿀벌에 대해서는 응애류·노제마병·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열병은 2015년 돼지열병 청정화를 목표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2-223〉 연도별 방역실적

(단위 : 천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39,465	124,877	133,866	142,894	144,345
예방 주사	소 계	138,889	124,264	133,179	142,080	143,391
	소기종저 외 5종	220	324	330	349	356
	돼지열병 외 4종	3,589	3,860	4,785	4,667	5,969
	진도개방역 및 광견병	80	80	64	64	66
	닭뉴캐슬병	135,000	120,000	128,000	137,000	137,000
구제 · 검진	소 계	576	613	687	814	954
	꿀벌 기생충구제 3종	228	228	252	327	465
	소결핵 검진 등 5종	348	385	435	487	489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류철혁

####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재발방지를 위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찰의무요원(545명)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담당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80개단)운영으로 주 1회 이상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중규모 이상 사육규모 농가는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우리 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2002년, 2010년 3회 등 총 5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경제 피해규모는 6조원 이상이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2006년, 2008년, 2011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는 2011년 1월 5일 영암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하였으나, 민·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헌신적인 방역활동에 힘입어 2011년 4월 6일 종식되었다. 이후 질병 발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통해 “AI 선제적 방역 대책”을 수립,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류철혁, 박석준

#### 다. 공중방역·공수의사 운영

도내 동물병원 공개업 수의사는 총 154명으로, 이 중 85명에 대하여 1999년까지는 공수의로 지정·위촉하여 예방주사, 질병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2000~2011년까지는 공수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제도’를 도입(소 1,000원, 돼지 500원/두당)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제도를 존치토록 하여 2005년 68명, 2006년 68명, 2007년 75명, 2008·2009년 85명, 2010년 78명, 2011년 85명을 질병예찰 등의 업무에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동물·축산물 교역 증가로 해외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가축방역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물

방역, 축산물위생, 동·축산물 검역의 분야에서 3년간 근무 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필한 것으로 하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제7914호, ’06. 3. 24.)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도입,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에 배치(총 39명, 사업소 13, 시·군 26)하여 동물방역·축산물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류철혁

### 라. 구제역시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AI·구제역 등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재난형 질병의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소독 및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34년 이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구제역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우제류 33천호/1,586천두에 대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약 4천명으로 구성된 농장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접종지도와 소독실태 점검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병원성AI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12천호/41백만수의 가금류 농가에 대하여 소독 및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탐방객의 소독조설치와 주변농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으로 유입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구제역의 발생에 대비 도, 축산위생사업소, 시·군 등 26개소에 가축방역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 상시 현장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가축 발견 시는 가축전염병 신고용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가축방역기관으로 신속하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류철혁

## 4-6.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유통구조 개선

### 가. 축산물위생관리

#### (1) 축산물 검사

도내 축산물작업장은 도축장(20), 축산물가공장(99), 집유장(2) 등 총 121개소이며,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검사관 11명을 배치하여 도축검사 및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비롯하여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도축검사원을 13명을 배치하여 도축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표 2-224〉 축산물 검사 실적

구 분	소(두)	돼 지(두)	닭(수)	우 유(톤)
2008	65,778	731,213	32,694,491	147,443
2009	66,964	747,059	38,600,243	142,290
2010	58,514	810,232	42,452,804	144,299
2011	68,784	986,383	42,664,536	141,270
2012	79,028	1,077,639	38,812,743	141,000

또한, 원유 검사는 1999년 7월부터 원유검사 공영화 시행으로 축산위생사업소에서 직접 검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의 불신을 해소하였고, 저등급 원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농가 지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유의 품질 향상과 낙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의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첨

단장비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종 82대 1,79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11종 11대 21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3) 축산물위생 시설개선

축산물위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나주 축산물공판장 등 10개소에 31,959백만원을 지원하여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수하였으며, 2012년까지 HACCP 적용 작업장은 43개소(도축장 20, 축산물가공장 23)이며,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HACCP 적용 작업장 확대하여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전도현

###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지도 지원

도축장·가공장외에도 가축사육농장(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집유장,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까지 축산물 생산, 공급 체계 전 과정에 HACCP 도입 확대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원하는 영업자 등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양돈농가 5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에는 한우·젓소 농가까지 확대하여 1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은 양계농가까지 확대하여 30개소, 2009년에는 한우·젓소·돼지·닭·식육판매업소를 포함 총 42개소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HACCP 지도 지원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내 121개소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63개소, 2012년에는 125개를 지원하였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최도영

## 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1) 쇠고기 이력추적제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에서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6년에는 지리산순한한우와 함평천지한우 330농가 19천두에 대하여 시범 추진, 2007년에는 나주, 담양, 강진, 영암, 무안의 93천두에 대하여 추진하여 전국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6월 22일 동 법률시행으로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전면시행에 이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20개 위탁기관에서 57만두를 이력 관리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방역담당 권두석, 담당자 손순옥

## 4-7. 축산 경영 안정

### 가. 축산물 가격안정

한우 소비는 2004년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크게 감소하여 한 때 460만원까지 하락되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05년과 2007년에는 510~520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년에는 390만원, 2009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 체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영향으로 380~420만원까지 하락하였다가 하반기에 쇠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확대 등으로 한우고기 신뢰확보와 소비증가의 영향으



로 49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1년에는 사육두수 과잉과 구제역 여파로 460만원으로 하락되었으며 2012년에도 사육두수 과잉, 소비 위축 등으로 470만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암소 감축사업, 소비 촉진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돼지는 2008년도 배합사료 가격의 대폭인상,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수입증가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로 높은 가격(평균 447천원)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사육두수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생산비 이하 가격을 유지하다 9월 이후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모돈감축 의무 시행 등으로 가격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육계는 2008년 들어 배합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생산비가 높아졌으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사육수수가 감소하여 가격은 오히려 높게 형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kg당 1,300~1,800원대의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종계도태 등 및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전년대비 상승으로 kg당 2,000~2,500원대의 가격 유지하였다.

오리는 2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사육두수 증가등으로 인해 수당 7천원대를 낮은 가격을 유지하다 2012년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수당 5천원대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 오리 도태 등 생산량 감소에 따라 하반기부터 6천원대로 상승하였다.

계란은 사육마리수 증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 수준 이하의 낮은 1,000~1,100원 가격을 지속 유지하여 산란계 사육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었다.

〈표 2-225〉 가축 및 축산물 시세

구분	한우		돼지		닭		오리	계란
	산지가격 (천원/kg)	도매가격 (원/kg)	산지가격 (천원/kg)	도매가격 (원/kg)	산지가격 (천원/kg)	도매가격 (원/kg)	산지가격 (원/3kg)	산지가격 (원/10개)
2008	3,895	13,604	286	3,713	1,567	2,739	5,430	1,282
2009	4,897	15,881	317	4,120	1,936	3,431	6,552	1,172
2010	5,773	16,036	299	3,891	1,912	3,527	7,254	1,145
2011	4,601	12,782	447	5,808	1,860	3,461	7,533	1,361
2012	4,723	13,121	306	3,974	1,698	3,260	5,776	1,132

\* 자료출처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오리협회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장용연

#### 나. 낙농산업 안정시책

낙농 사양기술의 발달, 가축개량, 양질의 조사료 급여 등으로 유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육농가수와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리터당 704원이었던 원유가격은 2011년 8월 16일 원유 가격 협상을 통해 리터당 130원 인상된(18.5% 증가) 834원으로 합의 되었 고, 2013년부터는 원유가격 현실화를 위해 매년 가격 연동제 실시 및 저능력우 도태 등 농가 경영안정을 꾀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축산기업화담당 윤한중, 담당자 최도영

#### 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자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및 도서벽지 등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를 무상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따른 지방비의 일부 부담 방침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

로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우유급식을 병행 추진 및 지원으로 우유 급식률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낙농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226〉 학교우유급식 실적

(단위 : 천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무 상 급 식	9,049	9,549	9,405	8,766	10,097
일 반 급 식	22,269	27,770	26,697	33,030	29,494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김숙현

### 라. 꿀벌산업 육성

천연꿀에 대한 DDA/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산에 대비하여 국내산 벌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벌통, 저온저장고 등에 104억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0년부터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함에 따라 꿀벌 육종사업, 면역증강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여 사육기반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곤충담당 배윤환, 담당자 임경순

## 4-8. 조사료 생산 및 배합사료 수급 안정

### 가. 초지조성

1980년대 이전까지는 초지조성과 소 입식자금이 연계 지원되어 초지조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1990년 이후 농촌지역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미 조성된 초지의 경우도 전용하여 산업화와 도로망 확충 등에 이용되며 초지관리면적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27〉 초지 조성 및 관리면적

(단위 : ha)

연도별	초지조성	초지제외면적	초지관리면적
2006	-	11.5	2,477.6
2007	1.0	18.6	2,460.0
2008	12.7	53.2	2,419.5
2009	20.6	40.2	2,399.9
2010	8.1	13.3	2,394.7
2011	-	7.7	2,387.0
2012	-	9.0	2,378.0

### 나. 사료작물 재배

초식동물(한우 등)을 사육하는데 수입조사료와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조사료 대체 및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겨울철 쌀보리 대체작물로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07년 4,700, 2009년 19천ha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조사료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대표 조사료 생산·공급 기지단

지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2011년 32천ha, 2012년 50천ha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조사료의 생산·공급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재배면적 65천ha에 1,400천톤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10개소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3개소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곤충담당 배윤환, 담당자 오재철

#### 다. 배합사료 수급안정

우리 도에는 총 118개소의 사료공장이 있으며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 공장 6개소, 양어용 등 배합사료공장 24개소, 단미·보조사료 공장 88개소가 있다. 양축용 배합사료공장에서는 매년 약 979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사료의 품질향상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매 분기별 정기 또는 수시로 사료생산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표 2-228〉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현황

구 분	소 재 지	생산 능력 (1일)	생산실적 (천톤/년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개소	1,490톤	810	797	812	979	1,044
농협나주배합사료공장	나주 문평 옥당 30	740	440	409	482	565	623
(주)삼양사목포공장	목포 석현 816-10	430	126	128	106	229	112
광주축협목포공장	영암 삼호 난원 1714	300	233	210	214	135	222
남양산업 (주)	강진 군동 호계 831	90	11	12	10	9	10
주)사조바이오피드	함평 읍 장년 1346-2	180	-	38	-	41	77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동물곤충담당 배윤환, 담당자 임경순

## 라. 축산종합평가 및 시상

개방화 시대에 대응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 시책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한 “축산 종합시상제”에서 2001년도에 우리 도와 고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0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는데 이어, 2002년에도 우리 도와 해남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6억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남의 축산발전을 위해 한우사육기반, 가축방역, 사료생산, 축산물 유통사업 등 각종 사업에 지원되었다.

2003년부터는 중앙 시상제가 폐지되어 도 자체 평가로 축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시군별 축산세를 적용하여 2개 그룹으로 분류 각 2개 시군, 대상 1개 시군을 선발하여 총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 2012년 : 5개 시군 - 대상(함평), 최우수(고흥, 여수), 우수(곡성, 완도)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친환경축산담당 문 만, 담당자 김태원

## 5. 산림의 자원화·소득화 추진

### 5-1. 산림환경의 흐름

#### 가. 산림현황

##### (1) 우리 도 산림현황

우리 도의 산림분포는 크게 나누어 난대림, 온대림으로 구분하며 난대림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이상으로, 크고 작은 남해안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생육하고 있으며, 온대림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6~14℃로 주로 소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대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나 계속된 조림사업으로 편백, 삼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등 인공조림 성공지도 많이 볼 수 있다.

산림면적은 695천ha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도 전체면적의 57%나 된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83천ha(12%)이며 공유림은 31천ha(4%), 사유림이 581천ha(84%)로 거의 대부분이 사유림이나 소유규모가 영세한 10ha미만의 산림소유자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발발에 따른 무질서로 산림이 황폐화되어 1970년말 ha당 평균입목 축적이 10m<sup>3</sup>에 불과하였으나 산림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제1·2차 치산녹화사업(1970~1988)과 제3차 산지 자원화사업(1988~1997),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실시로 현재는 ha당 입목축적이 98m<sup>3</sup>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125.6m<sup>3</sup>보다 낮으나 남해안 지역에 발생한 솔껍질각

지벌레 피해로 인한 해송 피해지의 갱신조림에 기인한 바가 크며, 조림목의 대부분이 30년생 내외의 중장령기 입목이 많아 앞으로 빠른 입목축적 증가가 예상된다.

지속적인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녹화를 성공하였으며,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경영기반을 구축,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인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것이다.

〈표 2-229〉 최근 5년간 산림자원 변동 추이

(단위 : ha, 천<sup>3</sup>)

연도	산 림 면 적			입 목 축 적			평균축적 (m <sup>3</sup> /ha)
	면 적	증감	비율	축적	증감	비율	
2007	695,283	△402	△0.06	58,795	10,830	18.42	84.6
2008	695,315	32	0.001	63,331	4,536	0.07	91.1
2009	694,963	△352	△0.05	68,489	5,158	7.53	98.6
2010	694,787	△176	△0.02	67,955	△534	△0.78	97.8
2011							

자료 : 2012년 산림기본통계(산림청)

## (2) 그 동안 산림정책의 흐름

우리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부분 황폐되어 1972년 이전에는 황폐산지복구와 새로운 임정체제 구축을 위한 ‘산지녹화 복구기’로 제1차 치산녹화 5개년 계획에는 ‘치산녹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산림녹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산림사업이 국가경제면에서 비중이 증대되었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는 ‘치산녹화기’로 본격적으로 황폐산지복구와 강력한 산림보호와 대규모 속성수 및 장기수조림을 추진하여 국토



녹화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산지자원화기’로서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지자원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나무심기 수종의 다양화와 숲가꾸기사업의 확대 및 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지·산주·산촌’을 포함하는 종합임정 전개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자율경영 임정으로 가기 위한 ‘경영기반 구축기’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의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하며 산지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촌과 도시, 사람과 숲이 공생하는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실현하는 경영임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표 2-230〉 산림정책의 변천과정과 산림의 변화

구 분	녹화착수기 (’72년이전)	1차치산 녹화기 (’73~’78)	2차치산 녹화기 (’79~’87)	3차산지 자원화기 (’88~’97)	4차지역 산림계획 (’98~’07)	5차지역 산림계획 (’08~)
산림면적 (천ha)	769(100%)	734(100%)	713(100%)	698(100%)	696(100%)	695(100%)
- 국 유 림	62( 8%)	64( 9%)	63( 9%)	63( 9%)	75( 11%)	83( 12%)
- 공 유 림	35( 5%)	33( 4%)	33( 4%)	31( 4%)	31( 4%)	31( 4%)
- 사 유 림	672( 87%)	637( 87%)	617( 87%)	604( 87%)	590( 85%)	581( 84%)
조림면적 (천ha)	연료림 조성	105	87	55	36	12
-인공조림율	-	14	27	35	41	43
임목축적 (m <sup>3</sup> /ha)	3	12	28	53	69	98
황폐지복구 (ha)	76,495	3,591	2,843	477	47	158
산림휴양 시설 (개소)	-	-	-	-	26	17
산촌개발 (개소)	-	-	-	2	16	20
임도시설 (km)	-	-	82	1,230	580	192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담당 김현철, 담당자 한종철

## 나. 산지이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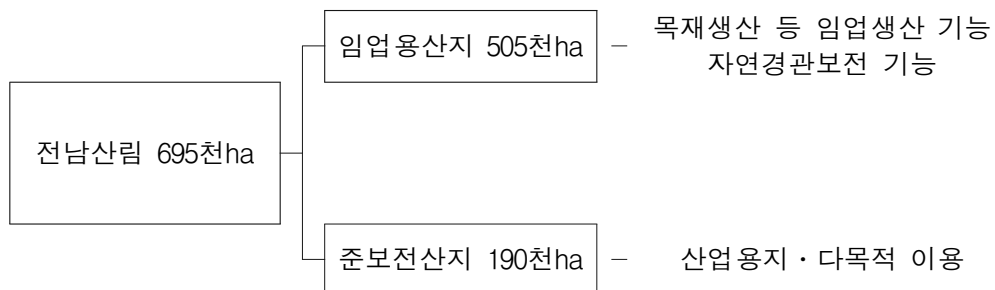
### (1) 산지이용체계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 정부부분을 산지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의 경제·환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체도를 정착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춰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림경영 및 자연 생태계·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산지에 대한 각종 개발 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족하는데 두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산지이용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첫째, 산지 이용구분 체계에 의한 합리적 보전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산업 용지 공급과 산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셋째, 산림통합관리 권역을 설정, 경제·환경기능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재편하여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231〉 산지이용체계



## (2) 앞으로 추진방향

DDA/FTA협상 등으로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농촌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 점점 기반이 붕괴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쌀·보리 위주의 농사보다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목재 생산의 기반을 조성해 가면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나무 가꾸는 시기에는 숲 속에 다른 작물을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이나 산림단기소득 작목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세계 각국의 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홍역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지전용과 골재·석재 채취, 광산개발 등으로 많은 산이 개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지의 보전과 이용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산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환경단체 등과 연계 최소한의 산림개발을 통한 국토 보전과 산림의 자원화 촉진, 그리고 공익기능 증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담당 김현철, 담당자 진호춘

## 5-2. 산림자원 육성 및 보전

### 가. 조림사업

#### (1) 현황

조림사업은 과거 대면적 벌채에 의한 획일적, 양적 조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제수는 물론 유실수, 큰나무, 특용수, 환경림, 경관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

격한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ha당 300~400본을 남기고 수하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 리기다 조림지에 대한 갱신조림과 형질불량 임지·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미입목지 등에 지역과 산지특성에 맞는 조림을 실시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선 이후부터 지역향토 특용수인 후박나무, 고로쇠나무, 황칠나무 등의 집중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면서 식재 수종 선별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적지적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추진상황

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3년이며 2030년까지 전남의 전체 산림면적 50%인 350천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제1·2차 치산녹화('73~'87)계획 및 제3차 산지자원화('88~'97)계획·제4차 지역산림계획('98~'07)의 추진과 특히 2008년에는 제5차 지역산림계획('08~'1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림면적은 총 297천ha를 추진하여 목표의 85%를 달성하는 등 전체산림의 44%에 인공조림을 실시하였다.

조림내용으로는 경제수, 큰나무 조림, 생태조림, 유휴토지조림 등으로 실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순환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식재하고 있는 수종으로는 편백, 소나무, 황칠, 후박, 백합, 고로쇠 등 40여종에 달한다.

〈표 2-232〉 조림 추진상황

구 분	면 적(ha)	식재본수(천본)
계	291,905	614,635
제1차 치산녹화기간 ('73~'78)	104,642	181,096
제2차 " ('79~'87)	86,700	180,757
제3차 산지자원화기간 ('88~'97)	55,382	142,390
제4차 지역산림계획기간('98~'07)	35,927	92,353
제5차 지역산림계획기간('08~ )	14,363	28,619

위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수 조립외에 약용, 식용, 공업 등 특용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조립 추진으로 단기소득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233〉 특용수 증식실적

(단위 : ha, 천본)

수종별 년도별	계		항칠나무		후박나무		고로쇠나무		웃나무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계	2,347	5,418	389	801	855	2,008	643	1,471	460	1,138
2003	417	1,029	18	24	120	230	147	399	132	376
2004	307	799	38	86	179	443	87	261	3	9
2005	270	704	35	64	140	380	52	131	43	129
2006	216	541	15	44	60	180	4	13	137	304
2007	111	327	13	39	55	165	19	54	24	69
2008	240	455	66	103	59	99	90	192	25	61
2009	247	413	80	137	72	119	50	71	45	86
2010	367	772	54	143	103	288	162	243	48	98
2011	172	378	70	161	67	104	32	107	3	6
2012	130	390	41	123	68	204	21	63	-	-

### (3) 앞으로 추진방향

장기적인 면에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향토수종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난대수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담당자 문미란

## 나. 숲 가꾸기 사업

### (1) 현 황

우리 도의 산림은 31년 이상의 어린 나무가 전체산림의 7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0년 내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대 도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임목형질을 향상시켜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심는 것 못지않게 숲 가꾸기 사업이 중요하다. 우리 도에서는 숲가꾸기 작업종별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 추진상황

숲가꾸기 사업은 과거 산림청 및 도에서 작업종별로 사업량을 정하여 시군에 배정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시·군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작업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업자 구제책 일환으로 추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007년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사업명을 바꾸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숲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도 산림자원화지원단을 구성하여 숲아베기 → 산물수집 → 톱밥제조 → 소득작목 식재의 원스톱(One-Stop) 방식 숲가꾸기의 실시로 숲가꾸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숲가꾸기 산물은 수집하여 톱밥·칩, 서까래,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빈 공간에는 더덕 등 소득작목을 입식하고 숲가꾸기 지역 내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칩덩굴제거사업은 칩덩굴제거 전문작업단 구성과 의용소방대

를 활용하여 연중 반복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맹독성 약제처리에 의한 토양오염과 타 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인력 제거 방법으로 전면 전환하고 2009년에는 칩뿌리 제거기(캔다)를 개발·보급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가치가 있는 칩뿌리는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칩덩굴은 축산사료용으로 공급해 부산물에 의한 2차 오염을 막고 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숲가꾸기 작업 후 소득작목 입식>



<공익림 숲가꾸기 - 휴양림>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감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2008년에 구성하여 현장 토론회,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숲가꾸기사업의 작업종별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풀 베 기(5~8월) : 조림 당해년 부터 3년간 실시
- 어린나무가꾸기(6~9월) :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에 실시
- 덩 굴 제 거(2~11월) : 덩굴류에 의한 임목피해 임지에 실시
- 천 연 립 보 육(6~7월) : 우량천연 활엽수림과 우량 어린나무림에 실시
- 슈 아 베 기(7~12월) : 조림 후 10~20년 된 임지에 주별 수확기까지 3회 실시

〈표 2-234〉 최근 5년간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20,130	64,810	81,502	84,406	89,412	
풀 베 기	46,661	9,720	9,825	11,579	8,641	6,896
어린나무가꾸기	21,469	4,224	3,772	5,729	3,637	4,107
덩 굴 제 거	40,591	4,880	7,597	10,648	10,944	6,522
천 연 립 보 육	148,457	24,318	39,449	37,161	29,564	17,965
숙 아 베 기	60,310	10,158	6,407	7,383	13,398	22,964
산 물 수 집	78,117	11,510	14,452	11,906	23,228	17,021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담당자 박정현

## 다. 산림자원연구소 운영

### (1) 현 황

임업분야 중 장기성을 요하는 시험연구 분야는 단기에 소기의 연구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시험연구사업 기본방침을 지역경제수종 육성, 임산소득원 개발, 산림환경보전 및 병해충 방제법 구명, 우량종묘 생산 보급 및 임업기술개발 연구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연구, 산촌지역의 대기 청정도 조사, 고품질 식약용 및 밀원수종 우수품종 개발 등 16개 시험연구과제에 대하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



으며, R&D 연구용역 과제로는 난지형 한국잔디 품종개발 및 실용화 연구 등 6개 과제를 전액 국비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연구소 자체적으로도 참가시나무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전남지역 맞춤형 바이오에탄올 생산 유용수종 발굴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산림내 공생수종에 수목에 의한 소나무림 활력도 조사 등 25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임업시험연구 신기술 특허출원 등 지적소유권 확보

2011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재배법을 개발한 참바늘버섯의 새로운 균주육성 및 재배법에 관한 품종보호 특허출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미래덩굴을 이용한 중금속 배출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생달나무 추출 정유를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을 개발 특허출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4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중 꽃송이버섯 재배 방법과 이소플라본이 강화된 기능성 칩 유산균 발효유의 제조방법 등 총 22건이 특허등록 완료되었다.

이중 2011년도 기술이전 성과로는 백아산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 등에 꽃송이버섯 재배방법 등 5개 특허가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45백만원의 선급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경상료로 매출액의 1~3%를 매년 정산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된 바 있다.

이처럼 임업연구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임업관련업체 및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나가 소득이 되는 현장임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기술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애로사항 상담과 기술 지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이전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 (3) 산림병해충 방제

전남지역의 우량소나무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산림병해충 방제법 구명 및 생물적 방제연구로 생태계 균형을 유지시키고 사전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997년도에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금정암 주변에서 전남지역 처음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7본을 완벽하게 벌채 소각 및 훈증 처리하였고, 2001년도부터 목포 유달산 및 도서지역과 영암, 신안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해 현재 완전 박멸을 목표로 예찰조사 및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솔잎혹파리 천적인 흑파리살이 먹좀벌과 솔잎혹파리 먹좀벌을 사육하여 나주, 화순 등 솔잎혹파리 피해지 200ha에 400만마리를 방사하였고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개미침벌 45천마리를 사육하여 여수 화치동 재선충병 피해지 4ha에 방사하는 등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통한 산림병해충 민원 107건을 처리하였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방제를 위해 수시로 도내 산림지역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도내 전역에 분포한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의 발생분포 및 발생량, 국립공원 등 특정지역, 주요 경제수종 및 기타 돌발해충의 종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고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에 대한 나무주사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의 효율화 및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 대기오염 실태조사

대기오염과 산성비 실태를 파악하여 산림피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남지역 12개소에서 빗물을 채취하여 강수산도 및 전기전도도, 이온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및 이산화질소 농도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는 등 도내 산촌지역의 청정도를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다. 2011년도 조사결과 이산화황은 전국 연평균 4.4ppb로 조사된 가운데 전남 지역이 1.8ppb로 전국 최저농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산화질소 농도는 전국평균 3.9ppb인 가운데 전남이 2.0ppb로 경북 1.6ppb보다는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청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오존농도 역시 전국 최저수준인 13.9ppb로 조사되었으며 전국평균인 24.9ppb의 절반농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수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 pH 5.13과 유사한 수준인 pH 5.10으로 강원 pH 5.02, 충남 pH 5.00 등과 함께 비교적 pH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기 중 오염물질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어 전남지역 산촌지역이 청정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건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 **(5) 산림자원의 유용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제품 개발**

산림자원의 유용성분 추출과 성분분석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식·의약품으로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결석용해 효과가 있는 참가시나무의 추출물을 이용한 결석제거 효과 연구결과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기능성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난대 특산수종인 생달나무 추출물의 항균활성 효과를 밝혀내 특허출원을 통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여 항균연고 및 여성세정제로의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꽃송이버섯을 이용한 건강식품과 화장품 제조기술을 (주)듀웰스와 (주)컬러핑 크알앤디에 기술이전 하여 팔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6) 앞으로 추진방향**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방에만 분포되어 있는 난대수종에 대한 중요

성 인식과 연구 체계화를 위해 주요 난대수종을 대상으로 기능성물질 추출 및 탐색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장기생태 연구와 해안방재림 효과분석 및 조성기술 개발연구 그리고 산림치유 기반구축을 위한 통합의학적 응용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분야 대책연구와 산림의 보건휴양 기능에 발맞춰 현대인의 산림치유 효과 제고를 위한 치유의숲 조성을 통한 치유기능 구명 등 산림의 기본기능 연구는 물론 자생수목의 기능성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접목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리지역 기후 및 풍토조건에 맞는 토종자원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이용가치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독성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연구를 위해 생물농약 개발연구 등 알려지지 않은 산림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윤병선, 임업시험과장 위안진, 담당자 오득실

## 라. 완도수목원 조성운영

### (1) 현황 및 운영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하면서 청해진이라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국내최대의 희귀 난대식물 750여종이 자생하는 난대림과 아름다운 다도해상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간직한 곳으로 인간과 자연의 정서적 교감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유일의 가장아름다운 난대수목원이다.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88번길 156번지(대문리 산109-1번지) 도유림 일대(2,050ha)에 조성하여 1991년 개원하였으며 종합적인 산림전시, 교육, 연구, 관광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대·아열대식물을 전시하

고 있는 온실과 난대림을 주제로 한 산림박물관, 산림전시실, 산림환경 교육관 등 여러 전시시설물과 동백나무원, 방향식물원, 희귀식물원 등 식물의 특성별로 30여개 전문소원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점차 관광자원화 되고 있다.

## (2) 추진상황

난대산림자원의 보고인 완도수목원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학술·전시·교육·문화·휴양적 기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차별화된 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91~2009년까지 19년간 339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원 기반조성 및 확대조성사업과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명품난대수목원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였다.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1991~1997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진입로 등 수목원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1999~2008년까지 181억원을 투자하여 면적을 확대 조정하고 전문소원 조성, 기반토목, 건축, 조경시설공사 등 4개 사업 54종 단위공사로 하여 연차별 3단계로 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1단계 등 20종의 단위공사, 2단계('03~'05년) 사업은 유전자원증식지구 조성, 온실 증·개축, 동백나무 특화구역 조성 등 22종의 단위공사, 3단계('06~'08년) 사업은 관리사 신축, 전기·통신시설 지중화, 매표소 증·개축, 시험기자재 및 표본제작, 휴게시설 설치 등 12종의 단위공사를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수목원으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5~2009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산림사료의 보존·전시·교육할 수 있는 전통 한옥목구조 양식의 산림박물관을 건립 2009년 11월 27일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자연생태 및 산림의 소중함과 난대림의 생태적 특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숲과의 만남', '난대림과 지역문화', '난대림이 주는 선물'을 주제로 한 3개의 전시실

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엽·종자류·산림·민속 등 10종 3,150점의 자료를 전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월 2일부터는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향토특산품 판매점운영 및 입장료 등을 징수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였다.

### (3) 앞으로의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산림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 강화에 따른 식물자원화의 전진기지로서 수목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급속히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다양한 볼거리와 배울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녹색의 가치를 선도하는 수목원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지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주는 진정한 명품 난대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34〉 관람객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람객(명)	174,762	64,882	54,272	48,762	67,122	95,864	102,217

〈표 2-235〉 수목확보 현황

구 분 \ 종	과 수	종 수	본 수	비 고
계	183(117)	3,801(397)	73,050	( )는 중복종
자생식물	126	752	-	
전문소원	120	2,940	65,486	
온 실	54	506	7,564	



완도수목원장 박형호, 수목원조성담당 인병석, 수목연구담당 오찬진.

## 5-3. 산림재해방지 체계 확립

### 가.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인 봄, 가을에는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등과 지역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주요 명산, 유원지, 산불취약지 등 341개소(149천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217개 노선(707km)에 대해서 산불발생위험 시기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 정보를 발송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차량 가두방송 및 마을 계도방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대응을 위해서 산불감시 카메라 124대, 감시 초소 81개소를 이용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불 감시원에게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위치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군 공무원과 산림공익요원, 의용소방대 등 2만5천명을 지상 진화대원으로 편성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였고, 조기진화 및 대형 산불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2대 소방헬기 2대 총 8대의 헬기를 출동 대기상태로 운영하고 공중계도 방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2-236〉 최근 5년간 산불발생현황

구분 연도별	발생 건 수	면적 (ha)	피해액 (천원)	원 인 별				
				입산자 실 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 화	어린이 불장난	방화범 기 타
계	163	243	1,382,603	67	47	7	0	42
2008	47	30	37,751	19	11	-	-	17
2009	46	159	167,154	18	18	2	-	8
2010	14	7	41,452	6	3	2	-	3
2011	37	38	1,104,789	17	13	-	-	7
2012	19	9	31,457	7	2	3	-	7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계장 김현철, 담당자 안종현

### 나. 산림병해충 방제

우리 도의 산림병해충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1929년과 1963년 무안과 고흥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소나무림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재선충병도 2010년 추가 발생하여 적극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임목축적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생태계가 변하면서 잠재 병해충의 돌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FTA 협상으로 임산물의 국제 교역량 증대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침입이 우려되고 있다.

감염 후 수개월 이내에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97년 6월 구례 화엄사 금정암 주변에서 발견되어 즉각적인 피해목 방제로 완전 박멸한 바 있고, 2001년도부터 목포 유달산 및 영암, 신안에서 추



가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적극 방제로 발생 3개 시군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되었다.

※ 청정지역 지정현황 : 영암(1ha) - '08. 1. 1, 목포(20ha) - '10. 1. 7, 신안(2ha) - '11. 1. 1.

그러나, 2010년 10월 재선충병 기발생지 인근지역(경남 남해·하동 등)과 연접하고 외부와의 물동량이 많은 여수시 화치동(공단 및 도로변)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연접시군인 순천시와 광양시에 추가 발생되어 즉각적인 긴급방제를 실시하였고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천 전략에 따라 선제적 방제로 2013년 책임방제 실현과 2015년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할 예정이다.

우리 도 산림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산림해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솔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밤나무해충 등 10여종으로 소나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및 솔잎혹파리는 매년 꾸준한 방제실시로 회복되어가고 있으나 잠재 병해충의 돌발적인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기 발견,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충별로 임업적방제(피해목제거, 재해저감사업 등), 화학적 방제(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 생물학적방제(천적방사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다.

이외에 산주 소득지원사업으로 밤 재배 주산단지인 순천, 광양, 보성, 화순 4개 시군에 산림청의 헬기를 지원 받아 무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생산 및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237〉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ha)

구분	계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밤나무해충		기타해충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계	94,389	86,736	17,371	16,650	5,666	6,305	55,873	47,298	15,479	16,483
2007	24,345	18,606	3,580	2,457	1,623	1,510	14,609	11,077	4,533	3,562
2008	22,468	21,965	4,818	4,053	1,372	1,399	13,234	13,234	3,044	3,279
2009	20,847	18,677	3,903	5,106	1,316	1,801	12,704	8,815	2,924	2,955
2010	14,356	15,756	2,604	2,895	527	937	8,520	8,520	2,705	3,404
2011	12,373	11,732	2,466	2,139	828	658	6,806	5,652	2,273	3,283
2012	11,460	10,699	2,185	1,558	456	830	7,115	6,094	1,704	2,217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담당 김현철, 담당자 김세근

다.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토사의 유출·붕괴, 비산 방지, 생활환경 보호·유지, 수원함양, 기타 경관의 보전과 비사, 해안방비 등을 위해 그 기능별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표 2-238〉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구분	계(ha)	재해방지	수원함양 (1종)	수원함양 (2종)	수원함양 (3종)	경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필지수	4,693	1,084	664	2,353	154	417	21
면적	11,919.3	754	1,396	6,820	732	2,167	50.3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생림, 식물 유전자와 종 등을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 숲가꾸기 및 보호·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산림생물 종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39〉 보호수 지정현황

총 본 수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왕버들	푸조나무	기타
3,976	2,187	754	399	131	82	423

노목, 희귀목, 명목 등의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자생식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보호수의 생육개선과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40〉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 본,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2,510	10,014,101	
2007	266	1,060,774	
2008	335	1,339,347	
2009	442	1,766,730	
2010	409	1,637,857	
2011	519	2,078,662	
2012	539	2,130,731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담당 김현철, 담당자 장혜경

## 라. 산림재해예방

### (1)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산림재해가 집중화, 빈발화 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여수시등 21개 시군 670개소로 126ha를 지정 특별 관리하고, 매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도 시설지, 대규모 형질 변경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정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산사태 발생은 1997~2012년도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311.08ha(피해액 42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집중호우로 91.17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복구를 완료하였다.

〈표 2-241〉 산사태 취약지 지정 현황

총 괄		산사태 취약지 지정 현황(사업종별)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개소	면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688	126ha	218	40ha	182	34ha	270	52ha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지보전담당 김종수, 담당자 정성표

### (2) 사방사업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및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대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

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 지질, 지형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산사태나 홍수범람 등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비가 집중되고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으며, 특히 태풍의 주 진로권에 해당되어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사방사업은 황폐산지를 단순 복구 등 녹화위주의 산지·해안사방을 주로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재해방지, 용수공급, 환경보전기능을 갖춘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방사업을 산림휴양 등 다목적 시공으로 전환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1) 산지사방

황폐지, 절개지, 산사태발생지 등에 비탈면의 물매를 완화시키고 유수분산, 소규모 기초공작물 시공과 병행하여 파종, 식재로 표토의 침식력을 약화시켜 토사유출과 붕괴를 방지하고 나지를 녹화피복 시켜 상류유역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 2) 사방댐

황폐계류상 중·형 침식으로 인한 돌, 자갈, 모래, 흙 등 붕괴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폭 20~70m, 높이가 4~6m로 설치하는 횡단 공작물을 말한다.



<실행 전> 장흥 대덕 연지



<실행 후>

### 3) 계류보전·복원사업

산지와 접속되는 황폐계류 홍수시 계천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한 하천 중·형 침식을 방지하고 산기슭을 고정, 물매를 완화시켜 하류 피해를 막는 것으로 주로 독쌍기와 횡공작물 등을 물매에 맞춰 계통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황폐계류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모래나 자갈 등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홍수범람 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4) 산림유역관리

500ha이상의 산림유역 중 산사태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종합하여 각종 재해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산림자원증식, 산림환경기능 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산림 종합적 사업이다.

〈표 2-242〉 사방사업 현황

구분	단위	계	'73~'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지사방	ha	7,044	6,986	8	8	11	11	11	9	
야계사방	km	439	314	7	10	19	11	25	53	
사방담	개소	558	207	24	30	85	77	85	50	
산림유역관리	설계	개소	16	6	3	3	2	-	2	-
	조성	개소	16	2	4	3	3	2	-	2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지보전담당 김종수, 담당자 최우영

## 5-4. 산림서비스 기능 제고

### 가. 산림휴양시설 확충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부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그 동안 조성·운영한 자연휴양림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시설, 콘텐츠 부족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에는 단체 휴양객 유치 및 회의를 위한 세미나 시설, 기타 탐방객의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또한 지역별 테마에 맞는 건강휴양림을 조성하여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건강코스 개발과 부대시설 확충, 건강수목 식재 등 연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휴식공간제공 목적에서 건강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휴양공간으로 자리 잡고 많은 관광객이 건강체험을 위하여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표 2-243〉 휴양림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 칭	조성년도	위 치	면적(ha)	사업비	비 고
계	14개소			1,537	50,229	
공유림	백아산	'90	화순 북 노치	100	4,095	개 장
	유치	'91	장흥 유치 신월	100	3,953	"
	제암산	'92	보성 웅치 대산	160	5,438	"
	팔영산	'93	고흥 영남 우천	186	3,876	"
	백운산	'94	광양 옥룡 추산	90	4,235	"
	가학산	'95	해남 계곡 가학	100	5,469	"
	한천	'97	화순 한천 오음	148	2,460	"
	주작산	'05	강진 신전 수양	169	4,996	"
	순천	'08	순천 서면 운평	90	3,372	"
	봉황산	'09	여수 돌산 신복	229	3,009	"
	다도해	'08	신안 자은 백산	33	1,772	조성중
	지리산구례	'10	구례 산동 탐정	34	1350	"
사유림	안양산	'92	화순 이서 안심	68	3,492	개 장
	섬진강팍리스힐	'97	광양 다압 신원	30	2,712	보수중

〈표 2-244〉 산림욕장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칭	조성년도	위 치	면적(ha)	사업비	비 고
계		30개소	842	12,927	
한천	1997	화순 한천 오음	100	550	
금성산	1997	나주 경현	40	557	
용암	1997	보성 문덕 용암	50	450	
홍길동 우드랜드	1998	장성 북하 월성	10	440	
천지	2001	함평 대동 운교	17	440	
나주호	2000	나주 다도 판촌	20	420	
모암	2000	장성 서삼 모암	26	430	
보림사비자립	2002	장흥 유치 신월	80	440	
용천사	2002	함평 해보 광암	10	420	
식산	2003	나주 산포 산제	10	400	
동춘	2004	고흥 고흥 호형	31	420	
억불산	2004	장흥 장흥 평화	100	400	
봉화산	2005	여수 미평	33	400	
송정산	2005	곡성 오곡 송정	15	400	
물맞이골	2005	무안 무안 성남	40	400	
활성산	2006	보성 보성 봉산	50	400	
제봉산	2006	장성 장성 영천	5	400	
만연산	2007	화순 화순 동구	12	400	
죽제산	2007	진도 고군 고성	5	400	
송공산	2009	신안 압해 송공	16	300	
용치골	2009	영암 영암 회문	5	400	
뱅뱅이골	2009	영암 금정 연소	21	400	
밤재편백	2009	구례 산동 개천	10	160	
증도	2009	신안 증도 우전	7	400	
청용등	2009	진도 지산 인지	5	400	
미암	2009	영암 미암 미암	85	400	
운 조 루	2010	구례 토지 오미	23	400	
양을산	2011	목포 용해동	5	1,000	
구수골	2011	해남 현산 황산	5	400	
마치산	2012	고흥 고흥 서문	6	500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이주미



## 나.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와 산림재해 등 자연환경·인위적 요인에 의해 식물자원이 훼손되고 멸실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생태숲을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생태숲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상징숲을 조성·복원하여 현지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면서,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산림휴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백운산식물생태숲이 '07년도에 전국최초로 개장하여 운영 중으로 연 87천여명이 다녀가고 있다.

〈표 2-245〉 생태숲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칭	위 치	조성기간	면적(ha)	사업비	비 고
9개소			538	34,644	
백운산식물생태숲	광양 옥룡 추산	'02~'06	63	7,913	개 장
순천생태숲	순천 서면 운평	'05~'13	65	4,028	"
금성산생태숲	나주 노안 영평	'08~'13	57	2,708	조성중
지리산구례생태숲	구례 광의 온당	'08~'14	60	6,160	"
고흥거금생태숲	고흥 금산 오천	'08~'12	60	5,585	완 공
모후산생태숲	화순 남면 유마	'08~'13	50	3,208	조성중
함평천지생태숲	함평 대동 운교	'10~'15	30	1,696	"
가마골생태숲	담양 용면 용연	'11~'15	93	750	"
영암생태숲	영암 미암 미암	'12~'14	60	2,596	기본 및 시설설계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이주미

## 다. 치유의 숲 조성

숲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유의 장소였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산림휴양이나 삼림욕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산림치유’라는 적극적인 휴양활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치유(Forest Therapy)는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고혈압, 아토피피부염, 주의력결핍, 화병 등 정신과 신체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우리지역의 숲에는 자연치유성분인 피톤치드와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알파피넨은 국내 타 지역보다 1.5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우리도에서는 우수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산림과 지역주민이 상생발전하는 지역거점 활력요소로 만들어 가기위해 2011년 「남도치유의 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1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산림으로 숲속의 집, 치유센터, 치유숲길, 일광욕장, 풍욕장, 명상공간, 숲체험장, 경관조망대, 체력단련장, 체조장,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산림작업장 등 산림치유시설이 설치된다.

〈표 2-246〉 치유의 숲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칭	사업기간	위 치	면적(ha)	사업비	비 고
3개소			355	26,297	
백운산 치유의 숲	'12~'15	광양 옥룡 추산	55	10,000	조성중
만연산 치유의 숲	'11~'15	화순 화순읍 동구	120	11,797	"
정남진 편백치유의숲	'10~'14	장흥 장흥읍 우산	180	4,500	"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김재광

## 라. 산촌생태마을 조성

우리 도의 경우 산촌마을로 구분된 마을 수는 14개 시군 52개 읍면에 542개 마을로 전국 4,052개 산촌마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촌마을은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도시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임업의 산업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산촌의 소득을 높여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개발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6개 지역을 개발 완료하고 5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기간은 마을당 3년간(설계 1년, 조성 2년)이며, 지원사업비는 마을 규모에 따라 설계 93백만원, 사전재해영향성평가 30백만원, 마을조성 14억~16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촌마을의 공동화로 인한 유희시설과 주거공간을 재정비하고, 산촌의 특화품목의 개발과 생산기반 조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산촌의 생산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체험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낙후된 산촌의 기폭제자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표 2-247〉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위 치	조성기간	사 업 비	비 고
41개소		59,892	
곡성 죽곡 원달	'96~'98	2,003	완료
보성 웅치 대산	'96~'98	2,174	"
구례 산동 위안	'97~'00	1,343	완료
순천 황전 대치	'98~'01	1,083	"
광양 다압 금천	'98~'01	1,479	"
장성 서삼 모암	'98~'01	1,332	"

위 치	조성기간	사 업 비	비 고
장흥 유치 신월	'99~'02	1,523	"
나주 다도 방촌	'00~'03	1,228	"
광양 진상 비평	'00~'03	1,393	"
강진 대구 용운	'00~'03	1,206	"
담양 창평 외동	'02~'03	1,249	"
순천 외서 덕치	'02~'04	1,263	"
영암 금정 아천	'03~'05	1,346	"
화순 도암 봉하	'04~'06	1,579	"
순천 송광 후곡	'05~'07	1,463	"
장흥 용산 운주	'05~'07	1,513	"
광양 봉강 조령	'06~'08	1,463	"
곡성 오곡 봉조	'06~'08	1,463	"
고흥 영남 양사	'07~'09	1,463	"
보성 울어 선암	'07~'09	1,457	"
보성 검백 수남	'08~'10	1,284	"
곡성 죽곡 유봉	'08~'10	1,081	"
장흥 장동 하산	'08~'10	1,081	"
장흥 장동 용곡	'08~'10	1,284	"
광양 옥룡 동곡	'09~'11	1,530	"
구례 토지 내동	'09~'11	1,493	"
구례 산동 탐정	'09~'11	1,493	"
곡성 오산 단사	'09~'11	1,482	"
보성 노동 대련	'09~'11	1,495	"
장성 서삼 대덕	'09~'11	1,495	"
담양 대덕 운산	'10~'12	1,513	"
보성 북내 일봉	'10~'12	1,524	"
화순 북 노치	'10~'12	1,523	"
화순 청풍 백운	'10~'12	1,523	"
장흥 장동 북교	'10~'12	1,523	"
장성 북하 신성	'10~'12	1,957	"
광양 다압 고사	'11~'13	1,462	조성중
담양 월산 용흥	'11~'13	1,533	"
보성 웅치 용반	'11~'13	1,489	"
장흥 유치 운월	'11~'13	1,581	"
장성 서삼 추암	'11~'13	1,523	"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김재광

## 마. 가로경관 조성

전남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의 조망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종선정으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대기오염 정화, 휴식 공간 제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로수 심기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5,369km에 후박나무, 가시나무, 배롱나무 등 40여종 1,320천주를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식재수종은 우리지역 향토성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노선별로 기존 수종과 연계한 지역향토 수종(배롱, 동백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 개념의 가로수종 합계획 5개년 계획('06년~'10년)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남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전원풍경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면서 도시와 농촌, 산악과 강변이 조화롭게 연결된 차별화된 명품가로수 길을 만들기 위해 제2차 가로경관 10개년 계획('11~'20년)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표 2-247〉 가로수 식재실적

(단위 : km, 주,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거 리	본 수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571	346,671	61,407	22,877	7,455	31,075	0
2008	295	42,844	10,542	2,588	1,299	6,655	-
2009	350	45,081	14,400	3,741	1,189	9,470	-
2010	266	197,232	12,894	6,222	1,957	4,715	-
2011	339	36,036	12,986	5,314	1,524	6,148	-
2012	321	25,478	10,585	5,012	1,486	4,087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담당자 안승옥

## 바. 도시숲 조성

급속한 도시개발로 도시화율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로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림은 다수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됨에 따라 생태적 건강성과 경관적 가치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최소기준 9㎡/인에 못 미치는 7.95㎡/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따뜻한 기후에 맞는 자생 수목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2005년도 여수시를 비롯한 4개시 3.3ha를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145ha의 숲을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55ha의 숲이 조성되었다. 예산규모도 2005년도는 6억원에 불과 했으나 2012년도에는 10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주변에 도시숲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등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됨에 따라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더불어 토지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숲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2-248〉 도시숲 조성 실적

(단위 : 개소, ha,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개 소	면 적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금
계	336	554.9	70,386	32,426	9,667	23,445	4,850
'07이전	33	42.6	6,270	3,035	1,052	2,183	
2008	23	49.0	9,464	4,732	1,420	3,312	
2009	65	108.3	13,574	6,787	2,036	4,751	
2010	88	99	16,138	8,069	2,421	5,650	
2011	65	111	14,320	6,348	1,842	4,630	1,500
2012	62	145	10,620	3,455	896	2,919	3,350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담당자 안승옥

## 5-5.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가. 단기임산물 생산소득사업 추진

우리 도 산림의 85%가 사유림이며 산주수는 378천명에 달하나 평균 소유면적이 1.5ha로 대부분 영세부업 형태로 경영되고 있다. 또한 나무심기에서 나무베기까지 50~8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내부투자 수익률(IRR)이 0.3~1.2%로 낮은 실정이어서 산림경영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구조개선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소득 전략품목의 육성을 통한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산물 중 단일작목 최대 수출품목인 밤과 청정산림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뽕은감, 산나물, 산약초 등 우리 도 비교우위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 등에 대한 채취기술 보급 및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조경수분재·야생화 등은 국민정서 순화 기능이 크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 및 주산지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 (1)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주산단지인 장흥군을 비롯해서 20개 시군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지재배 위주의 생산구조를 시설재배 구조로 전환하고 우량 종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표고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생산을 확대하기 위

해 톱밥표고 배지센터 및 재배사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 표고재배시설 6,670㎡를 지원하여 시설재배면적을 558ha로 확대하였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526ha(재배면적의 50%)를 받아 고품질 친환경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표 2-249〉 표고버섯재배 생산현황

(단위 : 호, ha, 톤,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배 농가수	1,167	1,167	749	752	690
연간 생산량	3,739	2,953	2,577	1,881	2,157
연간 생산액	31,379	29,521	30,429	39,472	35,166

이와 함께 산지 소득품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지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인 추세인 톱밥재배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수한 톱밥종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톱밥배지센터 8개소를 조성하였다.

표고버섯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재배의 현대화와 원목재배단지, 톱밥균상재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250〉 표고버섯 재배사 현황

(단위 : ㎡, 개소,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계		2008까지		2010		2011		2012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현대화 시설지원	239,950	7,228	200,405	5,053	24,408	1,342	8,467	466	6,670	367
재배 단지조성	2	1,425	1	1,025	-	-	-	-	1	400
톱밥 배지센터	8	3,484	3	1,550	2	1,165	3	769	-	-



앞으로도 표고버섯이 무공해 식품으로 농가소득 주요 생산품목으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산림소득원 개발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를 통해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 밤

우리 도내의 밤 생산은 광양시 등 도내 전체지역에서 재배생산 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251〉 밤 재배 생산현황

(단위 : ha, 톤,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배 농가수	7,064	7,064	6,289	5,776	3,367
재 배 면 적	14,128	14,128	11,210	9,921	9,127
연간 생산량	12,115	11,220	12,201	9,106	5,548
연간 생산액	201	167	183	146	146

도내 임업소득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밤 산업 육성을 위하여 5천ha의 밤나무 집약관리를 목표로 노령목 갱신, 토양개량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 밤나무는 대부분 '70년대 전후에 식재되어 밤나무림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을 2003년부터 3,364ha를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밤나무 재배지의 기계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 2,439km를 조성하였고, 2005년부터는 친환경 밤생산을 위하여 2011년까지 973ha의 면적에 친환경병해충 방제장비인 포충 등, 성페로몬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약제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줄이고 친환경생물 약제를 이용한 항공방제 실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56ha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밤나무 재배지의 산성화된 토양 개량을 위하여 2003년부터 밤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을 7,792ha에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재배지의 현지 여건에 맞게 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책 및 유기질비료를 활용한 토양개량을 추진하여 고품질 밤 생산,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밤 생산에 대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임산물저장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밤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밤나무 품종개량 및 기계화 촉진으로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가공에 유리한 대립종 신품종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밤재배 기반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표 2-252〉 임산물(밤) 저장시설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저 장 시 설(㎡)	2,454	1,622	1,200	500	500
사 업 비(백만원)	2,945	1,947	1,440	600	600
저 장 가능량(t)	6,135	4,868	3,000	1,250	1,250

※ 1㎡당 저장 가능량 : 2.5톤

〈표 2-253〉 밤 생산기반 조성현황

구 분	계	2009까지	2010	2011	2012
밤 작 업 로 (km)	2,439	2,251	40	95	53
밤방제장비지원 (대)	61	60	-	1	-
밤나무토양개량사업 (ha)	7,792	6,089	614	616	473
밤나무묘목대지원 (ha)	1,157	1,157	-	-	-
밤나무노령목관리 (ha)	3,364	2,882	160	204	118
친환경 밤생산 (ha)	973	662	228	76	7
밤 생 산 장 비 (대)	92	18	10	35	29

### (3) 고로쇠 수액 채취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종 위주의 권역별 특성화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광양 백운산, 순천 조계산, 담양 추월산, 곡성 곤방산, 구례 지리산, 장성 백암산, 화순 모후산 등에 고로쇠나무가 약 20,865ha가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 특히 해발 400m 부근 어디에나 있는 흔한 나무이다.

그러나 공해가 적고 산이 깊은 지리산 일대인 광양 백운산 등에서 나는 고로쇠 수액을 으뜸으로 친다. 우리지역 고로쇠수액 채취는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채취 및 위생적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는 물론 산림보호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경칩을 전후해서 채취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수액을 마시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우리 도는 이를 농가소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고로쇠 인공조림을 적극 권장하고 식재 희망자에게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표 2-254〉 고로쇠 수액채취 현황

구 분	채취면적(ha)	채취수량(천 ℓ)	채취기간	참여농가(호)	소득액(백만원)
2006	2,381	1,401	2.1.~3.31.	681	3,573
2007	2,337	1,341	2.1.~3.31.	670	3,458
2008	2,902	1,139	1.17.~3.31.	693	3,022
2009	4,153	1,152	1.17.~3.31.	652	2,994
2010	3,015	1,282	1.20.~3.31.	624	3,110
2011	3,114	1,478	1.17.~3.31.	642	4,256
2012	5,352	1,652	1.16.~3.31.	673	4,689

#### (4) 송이산 가꾸기

송이는 인공재배가 곤란한 무공해 임산물로 전남에서는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에서 공식적으로 생산 또는 분포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송이산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송이의 증수 및 안정적인 생산효과를 높이고 신규 송이산의 적극적 발굴로 산촌주민의 소득원 확대를 위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255〉 송이산 육성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톤)

구 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개 소 수	3	1	1	-	1
사 업 비	55	10	20	-	61
생 산 량	1.5	0.5	3.8	4.6	7.8
생 산 액	370	111	304	314	928

#### (5) 산림복합경영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산림복합 경영 사업을 72개소에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3개년 사업) 6개소(2011년 4, 2012년 2)를 조성하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적용유형을 단기소득사업 중심형, 목재생산 중심형, 복합산지 관리형으로 구분하고 현지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표 2-256〉 산림복합경영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산림복합경영	70	7,539	52	4,607	4	436	5	545	2	201	2	286
대단위산림복합경영	6	3,582	-	-	-	-	-	-	4	1,462	2	2,120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6) 조경수, 분재 생산

국민의 소득 및 문화수준 향상과 도시화에 따라 조경수·분재·자생란 등 관상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의 증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는 전국 생산량의 27.7%, 자생란은 93.8%가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림관상자원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토양개량 80ha, 관정개발 10개소, 컨테이너 시설 지원 1개소 등 3종에 약 5억원을 지원하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7〉 조경수, 분재생산 지원현황

(단위 : ha, 공, 개소, 백만원)

연 도	계		토양개량		관정시설		컨테이너 시설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011년	3종	368	44	208	15	120	1	40
2012년	3종	480	80	360	10	80	1	40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7) 임업 재해

한편 매년 계속되는 이상기온현상으로 임산물 재배 임가의 호우, 폭설, 냉해, 고온 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바, 임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기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기준단가가 낮아 현실적인 복구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후 9개 품목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였고, 2011년 인상되지 않은 7개 품목(표고자목, 밤, 야생화,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대상으로 인상추진 중에 있다. 조기에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복구지원금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 제도를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고자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업재생산의 뒷받침을 위한 밤, 뚝은감, 대추, 복분자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며, '12년도에는 꽃감, 표고 품목에 대하여 확대계획이며,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8) 친환경 임산물 생산

FTA, DDA 등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임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농식품 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안전성에 두고 고품질 안전임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고버섯, 산나물류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으로서 안전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임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 유도를 위하여 현재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완료한 11,385ha, 16,134개 임가를 중심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 임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하여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2-258〉 임산물 친환경인증현황 (2012년말 현재)

(단위 : 호, ha)

구 분	합 계		저 농 약		유 기 농		무 기 농	
	임가	면적	임가	면적	임가	면적	임가	면적
합 계	16,128	11,384	2,975	1,289	1,413	1,344	11,740	8,751
열매류	10,418	6,954	2,797	1,225	560	456	7,061	5,273
약용류	1,871	875	9	4	267	256	1,595	615
산채류	3,508	3,029	169	60	410	246	2,929	2,723
버섯류	331	526			176	386	155	140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나. 단기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지자원화 계획 추진으로 그동안 조립한 임목이 숲아베기 단계에 도달과 국내 목재 생산량의 증가추세 및 밤·버섯·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또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무공해 자연식품 선호 경향으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은 농산물과 함께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나, 계절적인 홍수출하로 생산량 조절 및 수급 조절이 어려우며 저장기간이 짧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의 과다소요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수입 임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불리해지며 이로 인해 국내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아갈 계획이다.

### (1) 임산물 관측정보

산림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밤, 대추, 표고버섯, 뽕은감, 산나물, 조경수 등 6종에 대한 재배동향과 가격·수급동향, 해외 시장정보 등에 대한 임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임산물의 미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어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임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2) 임산물 저장 및 건조

홍수출하 방지, 다양한 상품 생산 등을 위한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까지 26,512㎡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도 500㎡를 지원함으로써 밤, 표고버섯, 대추, 감, 산채 등의 단기소득 임산물을 홍수출하기에 수집·저장한 후 비수기에 출하하여 공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59〉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저장·건조 시설 현황	27,012	23,252	1,560	1,200	500	500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3)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의 규격화·표준화·브랜드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고시한 표준 출하규격으로 출하유도를 위하여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자재비와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표준출하 36개소(일반 21, 특별 15)에 7억원, 명품브랜드화 3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표 2-260〉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표준출하·포장 디자인 개선	218	3,654	84	1,069	19	404	22	509	57	1,018	36	654
명품브랜드화	9	1,140	2	188	3	469	1	156	-	-	3	327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4) 임산물 가공 및 컨설팅지원

친환경 청정 임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국내산 친환경 임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저장·가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생산자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차별화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량 임산물 유통근절을 위해 임산물 유통의 대표적 단체인 산림조합 유통조직을 주관으로 임산물 리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5) 임산물 지리적표시

최근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임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장흥 표고버섯(산림청 제2호), 2008년 구례 산수유(산림청 제15호),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산림청 제16호), 영암 대봉감(산림청 제17호), 2011년 진도 구기자(산림청 제34호), 담양 죽순(산림청 제36호) 등 6개 품목이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화순 작약, 화순 목단이 등록 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가치 향상과 브랜드 확산을 위해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담양죽순, 진도구기자, 광양백운산고로쇠 등 3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6) 고소득 임업인 육성

연간 임산물 소득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고소득 임산소득작물을 산업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업인을 발굴하여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임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61〉 고소득 임업인 현황(연도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소득 임업인	52	62	102	176	170	237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자원소득담당 김종수, 담당자 서민재

## 다. 임도시설

### (1) 현 황

우리 도에 임도가 최초로 개설된 곳은 1960년대 후반에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소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으로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임도개설이 미약한 실정이었으나 1984년부터 처음으로 민유 임도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임도시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 (2) 추진상황

우리 도의 임도 장기목표는 5,200km로서 이는 ha당 임도밀도를 8.5m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1984년 이후 지금까지 개설한 임도의 총 연장은 2,125km로서 이는 ha당 약 3.5m이고 계획량의 40%를 달성한 것이나 임업 선진국인 일본의 5m, 미국의 12m, 독일의 45m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함과 동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임도망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기본목표 하에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 신설을 줄이고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62〉 임도 시설현황(신규)

(단위 : km)

계	'84~'07까지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125	1,933	192	30	33	34	53	42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지보전담당 고재하, 담당자 정문조

### 라.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 선발하여 독립가로 인정하고 임업경영에 뜻이 있는 농산촌 청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독립가 육성제도는 산림청 훈령('71.4.22.)으로 독립가 육성요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우리 도는 현재 102명으로 매년 2~3명씩 늘었으나, 소유임야 매각이나 증여, 상속 등으로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규선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63〉 독립가 현황 및 인정요건

구분	인원	인정요건		인정권자
계	102명			
개인	모범	9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상	산림청장
	우수	14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 (유실수20ha)이상	시·도지사
	자영	77	소유산림 15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ha (유실수5ha)이상	시장·군수
법인	1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상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는 산림청 훈령('95.5.4.)으로 『임업후계자 선발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우리 도는 현재 781명으로 매년 20~80명씩 늘었으나, 우리 도 개인 산주수 38만여명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자율사업을 최대한 인정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 보조사업(국고 및 도비)을 우선 배정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임지의 벌채사업 신고시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서 생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264〉 임업후계자 선발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발누계	308	366	447	468	496	688	781

앞으로 인정·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임업기술 지도원과 지도담당 공무원이 접촉하여 산림경영 실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산림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참여, 정부포상, 선진 임업연수 등 기회 부여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촌 정착 기반 조성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추진  
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산림기획담당 김현철, 담당자 강신희